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曹 点 煥

中學校 學生 非行의 原因 및 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ause and Feature of Misconducts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1 9 9 9 年 2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金 貞 淑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曹 点 煥

中學校 學生 非行의 原因 및 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ause and Feature of Misconducts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 9 9 9 年 2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金 貞 淑

金貞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9年 2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3
4. 연구의 방법	3
5.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6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8
3. 학생비행의 동향	15
4. 중학생 비행의 역기능성	21
5. 선행연구 고찰	30
III. 자료분석의 결과 및 해석	36
1. 자타 인식과 환경 적응문제 조사결과	36
2. 중학교 학생 비행의 행태	46
3. 중학생들의 자타인식 및 환경적응 문제와 비행 행태와의 관계	85
IV. 요약, 결론 및 제언	89
1. 요약	89
2. 결론	90
3. 제언	92
참 고 문 헌	93
부 록	100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 분포	4
<표 2> 한국 청소년의 법적 위치	7
<표 3>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18
<표 4>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19
<표 5>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20
<표 6> 중학생 비행의 현황	24
<표 7>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36
<표 8> 타인에 의한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37
<표 9> 학생으로서의 자아 평가와 타인에 의한 학생 평가	38
<표 10> 가정에서 자신의 중요도	39
<표 11> 집에서 보내는 시간정도	40
<표 12> 부모의 교육방법	41
<표 13> 자기 가정에 대한 평가	41
<표 14> 학생 가족간의 유대관계	42
<표 15> 사제간의 친분 정도	43
<표 16> 학생으로서의 자기평가와 사제간의 친분 정도	44
<표 17> 공부에 대한 흥미 정도	45
<표 18> 학교 규칙 준수 정도	46
<표 19>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47
<표 20>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48
<표 21> 가출 경험 여부	49
<표 22> 가출 동기	50
<표 23> 가출 학생 행동의 특성	51
<표 24>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경험 여부	52
<표 25>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동기	53
<표 26>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를 하는 학생들의 특성	54
<표 27> 유흥업소 출입 경험 여부	55
<표 28> 학생 자신의 유흥업소 출입 동기	56

<표 29> 유흥업소 출입 학생의 특성	57
<표 30> 성 문란 행위 경험 여부	58
<표 31> 성 문란 행위 동기	59
<표 32> 성 문란 행위 경험 장소	60
<표 33> 성 문란 학생의 행동 특성	61
<표 34> 성문란 행위 경험 학생간의 특성	62
<표 35> 성 충동을 느끼는 상황	63
<표 36> 폭행을 당한 경험 여부	64
<표 37> 폭행의 가해 또는 피해의 원인	65
<표 38> 폭력 학생의 특성	66
<표 39> 가정에서 절도 및 갈취를 당한 경험 여부	67
<표 40> 학교내의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 여부 ...	68
<표 41>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하게 된 동기	69
<표 42> 절도 및 갈취 행위를 하는 학생의 특성	70
<표 43> 흡연 경험 여부	71
<표 44> 음주 경험 여부	72
<표 45> 흡연이나 음주 동기	73
<표 46> 흡연 및 음주를 하는 학생의 특성	74
<표 47>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 여부	76
<표 48>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 동기	77
<표 49> 본드 및 약물복용 학생의 특성	78
<표 50> 불량써클 가입 경험 여부	79
<표 51> 불량써클 가입 동기	80
<표 52> 불량써클 가담 학생의 특성	81
<표 53>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경험 여부	82
<표 54>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접촉 동기	83
<표 55>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를 보는 학생의 특성	84
<표 56> 중학생들의 자타인식 및 환경적응 문제와 비행 행태와의 상관관계	8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은 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으로 이들을 바르게 육성하고 선도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중요 과제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물질 문명에 기초를 둔 산업화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키고 도덕성이 추락되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완성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에 수반되는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여러 가지 문제노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발되는 것이 중학생의 비행행동이다. 오늘날 중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은 중학생들의 다양한 비행행동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는 비행의 집단화, 흉악화, 대도시 집중화, 무동기, 무분별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학교교육과 사회안정의 적신호가 되고 있다.

청소년 백서(1997)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학생범죄는 '92년 57.5%, '93년 59.7%, '94년 64.3%, '95년 66.4%, '96년 62.4%로 소년범죄 중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와같은 심각한 학생 범죄 증가 현상이 우리 사회 저변에 널리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학생 범죄에 관해 과학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는 물론이

고 상식적인 표층의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범죄의 발생은 그 원인 자체가 매우 미지적이고 복합적인 면이 잠재되어 있어 지난 20-30년 사이에 범죄 분야가 사회 과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가 되었다¹⁾.

현대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와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보다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이 전인적 인간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의 중학생들의 비행행위는 종종 학교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질서에도 악 영향을 끼쳐왔다. 학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필요에 의하여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즐겁고 풍부한 공동생활을 쌓기 위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비행 학생들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저항으로 인하여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성인위주의 사회환경은 중학생들의 가치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사회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의 비행행동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 비행 원인 및 특성 규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 비행의 원인과 그 특성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1)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7, p. 517.

사회적인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비행행위의 문제상황의 실태는 어떠하며 그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비행 학생들의 특성은 학생의 성별, 학교형태별, 학교설립별로 어떤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 비행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내용

첫째, 비행학생의 문제상황 및 실태에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고찰한다.

둘째, 비행학생의 비행동기를 학생의 배경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셋째, 중학생의 비행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영역별로 구분한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중학생의 비행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문헌고찰과 설문지 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의 비행 형태와 비행 경험자들의 비행 동기와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수는 312부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성별과 국·공립/사립의 구분, 학교의 형태 -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대한 통계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7.0을 이용한 빈도 분석

과 개인별 변인이 중학교 학생들의 비행 경험과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자타인식 및 환경적응 문제와 비행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은 350명이었으며,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수는 312부이다.

<표 1> 조사 대상 분포

구분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전체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49.7	50.3	76.0	24.0	36.2	19.2	44.6	100.0

이 연구 대상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학생 155명, 여학생 157명이며, 학교 설립별로는 국·공립 학생 237명, 사립 75명이었고, 학교 형태별로는 남학교 113명, 여학교 60명, 남녀공학 139명이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키 위한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 남·여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고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처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중학생들의 비행행동 원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또한, 더 넓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면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의 비행정도를 알 수 있었겠지만 서울시 소재 학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기는 아동시절부터, 자기 자존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는 성인기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으로 취급받으며 때로는 성인의 대우도 받는 과도기 또는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 과도기로서의 청소년기는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 인생의 한 발달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²⁾. 여기서는 먼저 청소년의 개념을 연령적으로 알아보고, 청소년의 인성적, 행동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청소년을 사회적으로나 연령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모호한 일이며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청소년기는 대체로 12·13·14세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연령을 초월하여 결혼이나 직업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를 지칭할 수도 있다³⁾.

James Dretvers와 W. D. Frohlich는 16~25세의 발달기를 기준으로 청소년(youth=Jugendater)을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청년시대와 성인연령까지가 포함된다⁴⁾.

2) 이춘재,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4), p. 3.

3) 김연식, “청소년 범죄와 선도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p. 5.

4) 박원기,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5, p. 5.

심리학적 측면에서 Bergius Roth는 사춘기와 청소년의 개념을 완성된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는 육체적으로 균등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통상 12~22세에 해당
 된다¹⁾. 참고로, 연령에 따른 한국청소년의 민법과 형법에서의 법적 위치
 는 <표 2>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 청소년의 법적 위치

법률명칭	호 칭	연 령 구 분	내 용
형 법	소년(2조)	20세 미만	민법에 준한 미성년자
	촉법소년	12세 이상 ~ 14세 미만	소년법 저촉 행위자
	우범소년	12세 이상 ~ 20세 미만	보호자 감독에 복종치 않은자 가정 이탈, 부도덕자와 교제등의 우범 우 려자
	불량행위 소년	20세 미만	음주, 흡연, 총기소지, 싸움, 부녀 희 롱, 풍기문란 행위
	형사미성 년자(9조)	14세 미만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 하지 않음
	범죄소년	14세 이상 ~ 20세 미만	형법 저촉 행위자
민 법	미성년자 (4조)	만20세 미만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자
	혼인적령 (807조)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 박원기,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85.

1) 박원기, 전게서, p. 6.

청소년이란 청년을 총칭하는 약 12세에서 25세 정도에 달하는 연령층 인구집단을 말한다. 또 청소년비행이라 하면 통상 교육학에서는 문제행동 또는 요선도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청소년을 형법법령에 저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촉범소년, 범죄소년을 의미한다. 민법에서의 청소년이란 만20세 미만이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남자 만 18세미만, 여자 만 16세미만을 뜻한다⁶⁾.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나타났으나,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적 개념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여러 가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정립된 비행청소년의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비행행위와 비행행위자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은 인간행동 그 자체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비행의 습득과정이 개인에 따라서 또한 행동특성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비행을 유형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6) 현암사, 「법전」, (서울: 현암사, 1979), p. 261.

청소년 비행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유형화하여 생각할 수 있다. 풍속사범, 절도사범, 폭력사범, 흉악사범 등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집단형, 단독형과 같이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이상심리를 중심으로 실험적 비행, 성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적 비행, 기질적 비행, 사회적 비행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상심리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실험적 비행이란 청소년 자신이나 환경에 그 비행을 지속시킬 만한 특징이 없으나 일시적으로 또는 탐색적으로 비행을 해보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호기심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몇 번 피워보고 그만두는 경우나 본드를 한번 맡아보고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만원 미만 정도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다던가, 나가서 아이들과 싸움을 한 적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청소년이나 아동이 관련되어 있는 행동이다.

이러한 실험적 비행은 똑같은 비행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며, 또한 그 비행으로 인한 피해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미한 정도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기는 정도의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적 비행은 도덕적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비인륜적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범법행위가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7) 법무부, 「청소년 범죄 연구 제 II집」 (서울: 문중인쇄, 1993), p. 52.

8) 한국 청소년 연구원,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p.

나 사회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증적 비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신경증으로 인한 비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신경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범하게 되는 비행을 가리킨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Weiner⁹⁾는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신경증적 비행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욕구가 있음을 밝혔다¹⁰⁾.

“첫째, 인정과 경탄이라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정이나 또래집단에서 인정이나 경탄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인정과 경탄을 어디선가 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게 된다. 인정과 경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소년이 비행을 하게 되면 부모, 교사, 경찰,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된다.

둘째,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 가운데 가족이나 또래집단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거나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은 꼭 있어야 함에도 이를

9) Weiner. B., Graham, S., Stern, P., and Lawson, M. E. Using affective cues to infer causal though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82), pp. 278-286.

10) 박성수,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재교육의 원리”, (청소년 범죄 연구, 법무부, 제10권, 1992), p. 9.

정상적 과정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극단적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 도와주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좌절감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하겠다¹⁾.

이러한 신경증적 비행은 지나친 긴장감, 죄책감, 후회, 좌절감 등이 격렬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경증적 비행을 ‘뜻밖의 사건’, ‘우울한 일’, ‘일시적 상황으로 생긴 일’ 또는 ‘급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나 ‘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증적 비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²⁾.

첫째, 이제까지 그 청소년이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비행의 범법행위가 너무나도 의외의 것이며 이제까지의 생활이나 행동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다. 대체로 그 청소년이 잘하고 순응적이었으며 성격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던 것과 대조가 된다.

둘째, 많은 경우 신경증적 비행은 그 범법행위를 한 시점이나 직전에 정서적 혼란이나 좌절감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 있었다. 이성의 단교선언, 친구의 배신, 지나친 꾸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 오랫동안 그리던 꿈의 무산 등과 같은 심한 좌절은 긴장과 불안 또는 절망감을 고조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1) 박성수, 전게서, p. 10.

2) 한국 청소년 연구원, 전게서, p. 23.

이상심리에 의한 청소년 비행 가운데는 성격장애가 원인이 되어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격의 특징상 융통성이나 적응성이 없어서 중대한 기능상의 장애가 있거나, 심한 정서적 고통의 원인이 되며 대인관계나 사고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격장애의 특징이다. 성격장애에는 의존형, 편집형, 분열형, 경계선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행이나 범죄를 주로 하게 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다¹³⁾.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지 않으며 경찰에 구속되어도 반사회적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대체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싸움과 구타를 자주한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을 하거나 기물을 파괴하고 훔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도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고 자기 자신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¹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장애란 아직 충분히 발전된 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되고 잇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적 장애로 인해서 비행을 하는 청소년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거나 충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나

13) 박중식,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5, p. 27.

14) 김정원, “청소년기의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p. 19.

근본적으로 혼자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비행을 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 두명과 함께 범행을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친구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청소년 비행은 정신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바로 정신병적 비행으로 분류된다. 왜곡된 현실지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이 정신병으로 나타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란 어떤 문화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신병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은 정신병 그 자체가 비행의 기본 원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⁵⁾.

실험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성격적 비행, 그리고 정신병적 비행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행 이외에 기질적으로 저질러지는 비행도 있다. 즉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피해망상이나 편집적 사고장애를 지닌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망상이나 편집적 사고로 인하여 분노의 폭발, 공격적 행동, 싸움 등의 비행을 하게 된다. 간질환자들이 범하는 전체 범죄의 약 50%정도는 폭행이나 싸움이다.

간질 이외의 기질적 문제로 인하여 비행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주의 집중결핍장애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분노나 폭력을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공격적 행동 이외의 다른 반사회적 행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행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과 관련된 개인행동의 차원보다는

15) 원호택,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1), p. 14.

사회적 비행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과 관련된 개인행동의 차원보다는 집단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행이다. 사회적 비행은 '사회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료들이 모르게 비밀로 하는 범법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집단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조직' 집단과 같이 결속되고 응집력 있는 집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비행이란 반사회적 행동을 허용하는 특수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청소년 자신이 그러한 하위문화에서 승인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위문화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사회적 비행을 부적응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적응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독적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집단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을 허용하거나 촉진하는 하위문화에서는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하면 권위나 위신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법규나 규범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제재나 벌을 받게 된다. 자아존중감이나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비행을 거부하게 되면 소외나 배척을 받게 된다. 비행 하위문화에서는 비행을 할 때에만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것이다¹⁾.

그러나 사회적 비행을 개인심리의 특성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회적 비행을 범하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분석하면 문화적으로 규범적인 집단의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서

1) 박중식, 전게서, p. 30.

요구되는 개인생활의 기능과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일이나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행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규범적인 또래집단과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을 하지 못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집단에 친화감을 더 느끼게 되어 생기는 비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청소년의 이상심리와 관련된 비행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 보았다. 먼저 실험적 비행은 청소년기라면 누구나 한번쯤 있을 수 있다는 이해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비행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으로 남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비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경증적 비행과 성격적 비행은 청소년 비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신경증적 비행과 성격적 비행을 행하는 청소년들이 선도되지 못했을 때 사회적 비행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

3. 학생비행의 동향

교육제도로써 학교는 학생들이 장차 책임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지식, 기술 및 가치를 전수하도록 사회가 그 기초적인 역할을 부여한 기관이다. 이러한 책임은 뛰어난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동기화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 경험은 비행 및 재비행의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학습능력 결손, 즉 학교에서의 실패와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상관적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좌절이나 실패가 비행을 야기시킨다는 주장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학습부진, 공부압력이 비행을 일으킨다는 연구¹⁸⁾들이 있다. 김준호와 노성호는 청소년의 비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학교를 파악하고, 공부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는 성적이 비행과 가장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한다. 이는 학습능력 부진 및 학업성취의 실패가 비행을 유발한다는 가정에서 진전된 것으로 학업실패의 누적과정에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체험하고 이러한 실패로부터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비행을 하게된다는 주장이다.

학교에서의 실패 및 좌절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는데, 통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유대적 관계가 약할 때 비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른 후 중퇴, 퇴학, 징계처분 등으로 학교에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교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사의 지지가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상황의존론을 더욱 분명히 반영한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낙인이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Lemert¹⁹⁾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비행이나

17) Polk, Kenneth, and Pink William., School pressures toward Deviance, In Kenneth Polk and Walter, E. Schafer, eds., Schools and Delinquen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pp.81-83.

18) 김준호, 노성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17.

19) Lemert, E.,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p.22.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단 범죄를 저질러 국가기관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되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후 비행이나 범죄에는 최초 비행원인에 비해서 달라진 사회적 반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제아라는 낙인이 붙고 주위사람들이 부정적인 기대(negative expectation)로 이들을 대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재비행, 재범을 하게 되고 점차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성인범죄자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하영²⁰⁾의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는 재비행요소로서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 제한’을 들고 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결정적인 비행을 계기로 사회적 통제상황에 놓이면서 현실적으로 학교나 직장생활, 절친한 친구들과로부터 단절되어짐으로써 더욱 큰 욕구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공격적, 반항적 욕구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 연도별 현황

최근 5년간(1992년~1996년) 학생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전체범죄 및 전체 소년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소년범죄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이다²¹⁾.

20) 문하영,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 p.19.

21)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7, pp. 517~518.

<표 3>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범죄(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92	1,542,035 (100)	99,301 (100)	6.4	57,057 (100)	57.5
'93	1,738,952 (112.9)	110,604 (111.4)	6.4	66,074 (115.8)	59.7
'94	1,660,973 (107.7)	108,342 (109.1)	6.5	69,611 (122.0)	64.3
'95	1,804,405 (117.0)	124,244 (125.1)	6.9	82,442 (144.5)	66.4
'96	2,018,296 (130.9)	146,986 (148.0)	7.3	91,750 (160.8)	62.4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7, p.517.

2) 유형별 현황

1996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범이 3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범 21.3%, 강력범 2.4%의 순이다.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1992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1.4%였으나 1996년도에는 2.4%로 크게 증가했다.

<표 4>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기범	
	인원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92	57,057	20,336	35.6	14,085	24.7	822	1.4	21,814	38.2
93	66,074	23,286	35.2	14,968	22.7	1,167	1.8	26,653	40.3
94	69,611	25,143	36.1	17,307	24.9	1,730	2.5	25,431	36.5
95	82,442	31,491	38.2	18,552	22.5	2,140	2.6	30,259	36.7
96	91,750	33,071	36.0	19,575	21.3	2,163	2.4	96,941	40.3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7, p. 517.

3) 동기별 현황

1996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범행이 21,935명(23.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욕 16,247(17.7%), 부주의 15,038(16.4%)의 순이다. 특히 이욕중에는 유흥비 조달이 6,611명으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 5>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92	93	94	95	96
계		57,057	66,074	69,611	82,442	91,750
이 육	소 계	4,834	5,382	11,628	13,172	16,247
	생 활 비	619	660	708	617	671
	유 흥 비	2,835	3,642	5,089	5,169	6,611
	허용사치심	1,380	1,079	1,045	1,126	1,324
	기 타			4,786	6,260	7,641
사 행 심		932	948	655	662	678
원한분노		1,157	1,051	1,013	897	933
호 기 심				6,565	8,263	9,638
가정불화		68	83	76	85	65
유 혹		1,088	1,618	725	775	852
우 발 적		15,629	16,497	17,400	20,911	21,935
현실불만				795	816	1,328
부 주 의				10,540	13,769	15,038
기 타		33,349	40,495	20,214	23,092	25,036

※ 이육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육 목적 범행임.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7, p. 518.

4. 중학생 비행의 역기능성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비행·탈선·일탈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청소년 관련문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비행의 한계나 개념이 한 국가·사회의 도덕, 전통, 관습 등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고, 한 사회내의 단체나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비행이란 일탈행동, 탈선행동, 이상행동, 부적응행동 등과 혼용되어 쓰여지는 개념으로서 그 사회의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나 또는 사회규범에 위배된 행위를 의미한다²²⁾.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비행이란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2조, 4조)²³⁾. 그리고 경찰의 보호대상에는 불량행위 소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²⁴⁾

한편 청소년 범죄자라 함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 요보호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이 이상의 다섯 경우를 모두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상세한 구분은 실제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

22) A.K. Cohen, *Deviance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6), p. 12.

23) 청소년 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서울: 체육청소년부, 1991), p. 109.

24)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5, p. 44.

단된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소년으로(‘소년법’ 제4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유책적인 범죄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형법’ 제9조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사건은 일단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1항).

또한 법원도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 50조). 그리고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하 ‘보호자 등’으로 약칭)은 범죄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은 없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하고, 보호자 등도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3항)

우범소년은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이다.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자 등은 관할 소년부

에 송치하거나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2항, 3항)²⁵⁾.

불량행위 소년은 20세 미만의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이러한 불량행위 소년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범소년과 구별된다. 즉 우범소년은 '성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습성, 관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비해, 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의미한다('소년 경찰 직무규칙' 제2조 6항). 이와 같이 불량행위 소년은 개개의 행위에 착안된 구분이며, 경찰관은 불량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조언해야 하나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보호 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폭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²⁶⁾.

2) 중학생 비행의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7)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남·여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안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²⁷⁾.

25) 유진식, 「소년법」 (서울: 육법사, 1982), pp. 150-151.

26) 장기웅, "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p. 9.

27)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중학생 비행, 폭력예방지도, 1997, p. 16, 서울특별시 교육청.

<표 6> 중학생 비행의 현황

종 류	내 용	남 중	여 중
절도행위	도 벽	■	■
	소 매 치 기	■	□
	몽 태 치 기	■	□
	갈 취	■	□
	강 도		□
폭력행위	음 성 서 클	□	□
	패 싸 움	■	□
	상 해	□	□
	폭 행	■	□
	기 물 파 손		■
폭언행위	거 짓 말	□	□
	사 기	□	□
	공 갈 협 박	■	□
	비 · 속 어	■	□
유락행위	군 것 질	■	□
	흡 연	□	□
	본 드 흡 연	■	□
	음 주	□	□
	유 흥 장 출입	■	□
	그 룹 미 텅	□	□
	가 출	■	□
	불순이성교제	□	□
	도 박	■	□
기 타	시 험 부 정	□	□
	무 단 결 석	□	□
	음 화 감 상	■	□
	자 살	□	□

자료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중학생 비행, 폭력예방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7, p. 17.

다음 표에서, □표를 해당 사안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며, 특히 많이 나
타나는 경우에 ■표를 하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중학생에서는 도벽 외에 소매치기, 몽태치기, 갈취 행위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 행위에 속하는 사안으로는 패싸움, 폭행, 기물파손 행위가 남자중학생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패싸움과 기물파손 행위는 여자 중학생에서는 크게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폭언 행위에 속하는 사안으로는 거짓말이 남·여 중학생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으며 공갈과 협박 그리고 비·속어는 남자 중학생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혹 행위에 속하는 사안 중에서는 군것질은 남·여중학생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남자중학교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사안으로는 본드 흡입, 음주, 유흥장 출입, 그룹 미팅, 가출 및 도박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사안으로서 시험부정행위는 남·여를 막론하고 중학생 모두에게 특히 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기타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무단결석과 음화 감상이 있다. 이 중에서 전자는 모든 학생에서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지만 남자 중학생에서 약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요즈음 자주 지상에 공개되는 사안으로 자살 행위가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하나의 병리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남녀중학생에서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대개 어떤 것이며, 또 각급 학교별 수준, 즉 청소년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은 어떤 것인가,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3) 중학생 비행의 폐해성

위에 나타난 사안들의 특징은 현대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및 청소년들의 적응상의 갈등 등을 잘 나타내 보여 준다. 구체적인 특징들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집단화

첫째 특징으로 집단화의 경향을 들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룹을 지어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왜 이런 집단화의 경향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첫째, 중학생의 발달상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교우집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종족 인간관계 보다는 횡적 인간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나쁜’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맛보려 한다. 그러므로 다른 아이들과 행동을 함께 하게 된다.

둘째, 군중심리의 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단독으로는 감히 어떤 비행을 저지를 수 없고 집단의 일원으로서 한데 뒹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 즉 르·봉(Lebon, G)이 이야기하는 군중심리의 특징인 익명성, 피암시성, 감염성에 의해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

셋째, 개인의 주체성 또는 자아정체성이라 표현되는 개인의 독특성의

상실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하겠다. 주체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동하는 경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2) 난폭화

그 다음 특징으로는 중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난폭화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욕구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중학생 정서의 돌발성이 원인이 된다. 청년기의 특징을 뷰러(Buhler)는 부정기 또는 제2의 반항기라 했고 혹자는 행동의 중용이 없는 시기라 하였으며, 또 스텐리 홀(S. Hall)은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 한 것처럼, 중학생기에는 정서가 우발적이고 과격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행동은 난폭하게 되며, 조그마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큰 싸움을 하게 될 우려가 많게 된다. 또 이드(Id)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충동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학생들은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는 참을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3) 사회범죄화

쉬운 말로 모방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물론 학생이 출생하여 성장, 발달하면서 부모나 성인의 행동을 흉내냄으로써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이라는 개념 속에는 좋은 방향으로의 행동변화와 나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성인의 나쁜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가 이루어진다.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의 특징을 가리켜 에릭슨(Erikson)은 주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라 했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려 하여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특히 바르지 못한 성인이나 부도덕한 연예인들의 모방이 영향을 줄 때가 있다. 이것이 그릇된 방향에서 영향을 줄 때 문제가 된다.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불순 이성교제, 도박, 사기, 공갈, 협박 등은 특히 성인행동의 모방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이다.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4) 연소화 및 여학생의 사안 발생 증가

학생 사안의 또 다른 특징은 연소화의 경향이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성숙도 빨라진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학생 범죄도 차츰 연소화되고 있다. 각종 보도자료 통계를 접하면 이외로 여성의 음주·흡연·폭력의 사안이 눈에 띄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다양화

이전에는 기껏해야 도벽, 패싸움, 기물 파손, 거짓말, 비·속어, 군것질, 가출 등 몇가지 사안만이 학교 사태에서 문제시 되었으나 요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은 아마 처음 듣는 사안이라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됨과 동시에 성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심리상태 역시 복잡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인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결과 학생 사안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6) 우발성

또 하나의 특징은 우발성이다. 다르게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말로도 표현된다. 앞서서도 잠깐 지적했었지만 단돈 10원 때문에 다투다가 친구를 죽인다거나, 어머니의 꾸중 한번 들었다고 해서 가출하여 자살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서의 불안정성이나 인내심의 결핍 등 중학생적 특징이 원인이 된다고 본다.

(7) 죄책감의 결여

학생 범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비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만 분개할 뿐 자신의 범행이 나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흔히들 윤리, 도덕의식의 결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 원인을 따지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보다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Freud)의 성격이론에 의하면 정상인은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서로 잘 균형을 유지하였을 때라고 한다. 그런데 중학생의 이러한 현상은 초자아와 자아의 힘이 극도로 약화되고 이드의 힘만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8) 우수학생의 비행 증가

이전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문제가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츰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공부도 달하는 우수학생들이 학생 사안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지능이 높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더 극악성이 나타난다.

(9) 부유층 및 실부모 구존학생의 사안 발생 증가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특징으로는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오던 학생 사안이 차츰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실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비교적 좋은(객관적으로 볼 때) 집안의 자녀들이 학생 사안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우리 사회의 급진적인 산업화 현상이 낳은 또 하나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기는 하지만 자녀와의 인간적 접촉이 결여되고 물질적으로만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 그만이라는 기성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돈이 필요해서 절도나 강도 행위를 하기보다는 다른 심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런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함을 지적하고 싶다. 변화하는 사회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체계에 대한 적응 곤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5.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종호는 주변환경과 청소년 일탈행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첫째, 청소년의 일탈행위 성향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거의 없으므로 성인들 위주의 시설과 용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을 위한 일부 업소들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주로 한 영업행위가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보다 26%정도 일탈행위가 높게 나타났고, 계열별 비교에서도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20%정도 일탈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서 의지력과 일탈행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부모님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학생은 50%였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만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정환경과 일탈행위와의 관계에서 반 정도의 학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부모의 과잉기대와 지나친 간섭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 위주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40%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 집단에서 빈부의 차로 인한 불만이 높은 학생에게서 일탈행위가 12%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²⁸⁾

2) 어전은 중학생의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첫째, 음주는 질문지 조사 대상학생의 31.0%인 93명이 음주경험이 있

28) 최종호, “주변환경과 청소년 일탈행위의 상관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61-64.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는 호기심에서가 33.3%인 31명, 최초 음주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가 52.7%인 49명, 한달에 음주회수는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흡연은 조사대상학생의 17%인 51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의 동기는 주위 권유가 39.2%인 20명, 최초로 흡연한 시기는 중1 이하가 42.0%인 21명, 하루의 흡연량도 1~2개피가 45.1%인 2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절도는 조사대상학생의 7.3%인 22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기로는 호기심과 유희비 마련이 각각 27.3%인 6명, 최초 절도시기는 중2 때가 36.4%인 8명, 절도 경험의 대상은 중학생이 40.9%인 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출은 조사대상 학생의 7.0%인 21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기로는 부모의 꾸중과 호기심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 5명, 최초 가출시기는 중1 이하가 11명, 가출회수는 1회가 13명, 가출시의 생활은 가지고 간 돈으로가 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성 경험은 조사대상학생의 6%인 18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경험의 동기는 호기심에서가 8명, 최초 시기는 중2 때가 12명, 대상자는 이성친구가 8명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약물 경험은 조사대상학생 중 3%인 9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경험동기는 호기심에서라고 응답한 것이 3명, 최초 약물경험시기는 중2 때가 5명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약물경험후 현재의 증상은 “난폭한 행위를 한다”가 남학생의 경우 4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²⁾

2) 어전, “중학생의 비행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59-61.

3) 여춘자는 청소년비행에 개재하는 심리적 변인들의 복합적 경로 모형 연구에서

자기기대 신념과 타인배려 신념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자존감과 대인관계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감 때문에 자존감이 손상되고 대인관계 신뢰도가 저하되어 인지적 몰락 상태에 이르러 자기도피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비행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³⁾

4) 류병택은 재비행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첫째, 연구결과 비행소년 재비행율이 5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청소년의 비행 및 재비행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 처분에 비해 소년원 송치 처분자의 재비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발전적 검토와 함께 소년원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다양한 비행요인들에 따라 재비행 여부, 그 기간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78.8%가 2년 이내에 재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동안 가정의 집중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호 관찰 개별화에 따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여춘자, “청소년비행에 개재하는 심리적 변인들의 복합적 경로 모형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48-53.

넷째, 수용시설에서 사회에 복귀한 비행소년이나 사회내 보호처분을 받을 비행소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 원호 등 철저한 추수 지도는 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선도에 필수적이라 보여진다고 하였다.³¹⁾

5) 이문길은 중학생의 비행실태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첫째, 농촌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비행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호기심 또는 친구 및 선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가족의 화합이나,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셋째, 또래집단인 교우간의 교재관계에 있어서도 교우의 영향력과 교우의 질적 여부에 따라 재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공부 압력, 친구와의 갈등,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비행행동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³²⁾

6) 김지은은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첫째, 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인적 요소, 가족 요소, 상호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초 비행 이후 재비행을 저지를 위험율에 대하여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은 사회환경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류병택, “재비행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47.

32) 이문길, “중학생의 비행실태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53-55.

둘째, 각 범주별 요소들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재비행 위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초비행 이후 학교로부터 단절, 초비행 이후 학교 분위기 그리고 초비행 이후 또래의 비행성이 나타나 역시 사회환경적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청소년이 초비행 이후 학교로부터 퇴학 혹은 자퇴 등을 하게 되어 단절된 경우일수록, 초비행 이후 청소년이 느끼는 학교분위기가 부적응적일수록 그리고 또래의 비행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초비행 이후 재비행 위험율이 높고 재비행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지지, 교사의지지, 전문가의 공식적지지 등의 사회적지지 변수는 청소년의 재비행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33) 김지은,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8, pp.53-55.

Ⅲ. 자료분석의 결과 및 해석

본 장은 중학교 학생 비행의 원인 및 특성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타 인식과 환경 적응문제 조사결과

1) 자타평가에 의한 자기인식

<표 7>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아주 모범적이다	빈도	16	12	17	11	13	6	9	28
	%	10.3	7.6	7.2	14.7	11.5	10.0	6.5	9.0
모범적인 편이다	빈도	98	121	164	55	76	50	93	219
	%	63.2	77.1	69.2	73.3	67.3	83.3	66.9	70.2
약간 불량하다	빈도	40	24	56	8	23	4	37	64
	%	25.8	15.3	23.6	10.7	20.4	6.7	26.6	20.5
아주 불량하다	빈도	1	0	0	1	1	0	0	1
	%	.6	.0	.0	1.3	.9	.0	.0	.3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974^*$ df=3 p=.047		$\chi^2=11.530^{**}$ df=3 p=.009		$\chi^2=13.569^*$ df=6 p=.035			

* p<0.05, ** p<0.01

<표 7>은 학생으로서의 자기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70.2%가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약간 불량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은 전체의 20.5%이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평가

(79.2%)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불량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은 20.8%이었다.

독립성 검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1%하에서 학교설립별로 학생으로서의 자아평가가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15.3%)에 비해 남학생(31.4%) 중에, 사립 중학교 학생(12.0%)에 비해 국공립 중학교 학생(23.6%) 중에 자신에 대해서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여학교(6.7%), 남학교(21.3%), 남녀공학(26.6%)의 순으로 자신에 대해서 불량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타인에 의한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아주 모범적이다	빈도	10	12	15	7	9	6	7	22
	%	6.5	7.6	6.3	9.3	8.0	10.0	5.0	7.1
모범적인 편이다	빈도	103	111	161	53	77	46	91	214
	%	66.5	70.7	67.9	70.7	68.1	76.7	65.5	68.6
약간 불량하다	빈도	39	32	59	12	24	8	39	71
	%	25.2	20.4	24.9	16.0	21.2	13.3	28.1	22.8
아주 불량하다	빈도	3	2	2	3	3	0	2	5
	%	1.9	1.3	.8	4.0	2.7	.0	1.4	1.6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58$ df=3 p=.715		$\chi^2=6.313$ df=3 p=.097		$\chi^2=8.383$ df=6 p=.097			

<표 8>은 타인에 의한 학생으로서의 자기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로,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모범적인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8.6%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이 자신을 약간 불량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도 22.8%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자신에 대해서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느끼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의해서도 자신이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평가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학생으로서의 자아 평가와 타인에 의한 학생 평가

항목 \ 변인			타인에 의한 학생 평가				계
			아주 모범적	모범적인 편	약간 불량	아주 불량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아주 모범적이다	빈도	12	11	5	0	28
		%	54.5	5.1	7.0	.0	9.0
	모범적인 편이다	빈도	8	182	28	1	219
		%	36.4	85.0	39.4	20.0	70.2
	약간 불량하다	빈도	2	21	38	3	64
		%	9.1	9.8	53.5	60.0	20.5
	아주 불량하다	빈도	0	0	0	1	1
		%	.0	.0	.0	20.0	.3
계	빈도		22	214	71	5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14.784^{***}$
df=9, p=.000

*** p< 0.001

<표 9>는 학생으로서의 자아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로 유의수준 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타인의 시선에 무감각하지 못하며, 특히 사회의 인식이 우리 학생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신이 생각하

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보다 타인에 의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게 될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에서의 자기 평가

<표 10> 가정에서 자신의 중요도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빈도	13	17	21	9	11	9	10	30
	%	8.4	10.8	8.9	12.0	9.7	15.0	7.2	9.6
자신이 없으면 집에 평화가 올 것이다	빈도	11	11	18	4	9	4	9	22
	%	7.1	7.0	7.6	5.3	8.0	6.7	6.5	7.1
중요한 존재이다	빈도	74	84	121	37	48	26	84	158
	%	47.7	53.5	51.1	49.3	42.5	43.3	60.4	50.6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다	빈도	57	45	77	25	45	21	36	102
	%	36.8	28.7	32.5	33.3	39.8	35.0	25.9	32.7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65$ df=3 p=.464		$\chi^2=1.043$ df=3 p=.791		$\chi^2=11.438$ df=6 p=.076			

<표 10>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로, 자신이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학생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32.7%나 되었다. 또한 자신이 가정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느끼는 학생은 9.6%, 자신이 없으면 집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7.1%로 나타났다.

<표 11> 집에서 보내는 시간정도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잠만 잔다	빈도	16	17	25	8	12	10	11	33
	%	10.3	10.8	10.5	10.7	10.6	16.7	7.9	10.6
학원가는 시간외에는 집에만 있다	빈도	67	80	108	39	48	23	76	147
	%	43.2	51.0	45.6	52.0	42.5	38.3	54.7	47.1
독서실에 주로 있다	빈도	2	2	4		2	2		4
	%	1.3	1.3	1.7		1.8	3.3		1.3
밖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빈도	70	58	100	28	51	25	52	128
	%	45.2	36.9	42.2	37.3	45.1	41.7	37.4	41.0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292$ df=3 p=.514		$\chi^2=2.095$ df=3 p=.553		$\chi^2=11.095$ df=6 p=.085			

<표 11>은 학생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로, 학원 가는 시간 외에는 집에만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한 학생도 41.0%나 되어 하교 후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그냥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학생(43.2%)보다 여학생(51.0%)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교육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5.7%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부모의 뜻에 따라 지도한다는 응답도 28.2%나 되었다. 또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6.1%이었다.

<표 12> 부모의 교육방법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모든 것을 부모님 위주로 지도하신다	빈도	46	42	70	18	34	13	41	88
	%	29.7	26.8	29.5	24.0	30.1	21.7	29.5	28.2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빈도	101	104	154	51	72	41	92	205
	%	65.2	66.2	65.0	68.0	63.7	68.3	66.2	65.7
내가 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	빈도	8	11	13	6	7	6	6	19
	%	5.2	7.0	5.5	8.0	6.2	10.0	4.3	6.1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0.687$ df=2 p=.709		$\chi^2=1.290$ df=2 p=.525		$\chi^2=3.496$ df=4 p=.479			

<표 13> 자기 가정에 대한 평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아주 만족한다	빈도	112	95	150	57	76	35	96	207
	%	72.3	60.5	63.3	76.0	67.3	58.3	69.1	66.3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빈도	17	23	33	7	15	11	14	40
	%	11.0	14.6	13.9	9.3	13.3	18.3	10.1	12.8
별다른 점이 안간다	빈도	12	17	26	3	9	8	12	29
	%	7.7	10.8	11.0	4.0	8.0	13.3	8.6	9.3
달리 갈데가 없으 니 있을 뿐이다	빈도	14	22	28	8	13	6	17	36
	%	9.0	14.0	11.8	10.7	11.5	10.0	12.2	11.5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923$ df=3 p=.177		$\chi^2=5.367$ df=3 p=.147		$\chi^2=4.523$ df=6 p=.606			

<표 13>은 현재 학생 자신의 가정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로,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한 학생은 12.8%, 별다른 정이 안간다 9.3%, 달리 갈데가 없으니 있을 뿐이다 11.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33.7%로 이는 중학생 10명 중 적어도 3명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생 가족간의 유대관계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아주 정겹게 지낸다	빈도	43	44	67	20	31	19	37	87
	%	27.7	28.0	28.3	26.7	27.4	31.7	26.6	27.9
정겹게 지낸다	빈도	94	96	141	49	66	33	91	190
	%	60.6	61.1	59.5	65.3	58.4	55.0	65.5	60.9
서먹서먹하다	빈도	13	14	24	3	11	6	10	27
	%	8.4	8.9	10.1	4.0	9.7	10.0	7.2	8.7
서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빈도	5	3	5	3	5	2	1	8
	%	3.2	1.9	2.1	4.0	4.4	3.3	.7	2.6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0.557$ df=3 p=.906		$\chi^2=3.637$ df=3 p=.303		$\chi^2=5.460$ df=6 p=.486			

<표 14>는 학생 가족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족과 정겹게 지낸다고 응답한 학생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정겹게 지낸다고 응답한 학생은 27.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간에 서먹서먹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7%, 서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6%로 중학생 10명 중 1명 정도가 자신의 가정의 유대정도가 약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학교에서의 자기 평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선생님과 친분정도, 학교 교칙의 준수 정도, 학교 공부에 대한 자신의 흥미정도 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사제간의 친분 정도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빈도	28	38	52	14	21	22	23	66
	%	18.1	24.2	21.9	18.7	18.6	36.7	16.5	21.2
그저 그렇다	빈도	111	111	166	56	77	36	109	222
	%	71.6	70.7	70.0	74.7	68.1	60.0	78.4	71.2
선생님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빈도	16	8	19	5	15	2	7	24
	%	10.3	5.1	8.0	6.7	13.3	3.3	5.0	7.7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169$ df=2 p=.124		$\chi^2=0.595$ df=2 p=.743		$\chi^2=18.131^{**}$ df=4 p=.001			

** p<0.01

<표 15>는 사제간의 친분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로,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1.2%로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2%였으며, 선생님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학생도 7.7%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 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학교 형태별로 사제간의 친분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교(18.6%)나 남녀공학(16.5%) 학생보다 여학교(36.7%) 학생들 중에 자유롭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학생으로서의 자기평가와 사제간의 친분 정도

항목 \ 변인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				계
			아주 모범적	모범적인 편	약간 불량	아주 불량	
사제간의 친분정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빈도	10	45	11	0	66
		%	35.7	20.5	17.2	.0	21.2
	그저 그렇다	빈도	17	160	45	0	222
		%	60.7	73.1	70.3	.0	71.2
	선생님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빈도	1	14	8	1	24
		%	3.6	6.4	12.5	100.0	7.7
계	빈도		28	219	64	1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8.889^{**}$
 df=6 p=.004

** p< 0.01

이를 <표 16>에서 학생으로서의 자기 평가와 연결지어 살펴보면, 자신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한 학생일수록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1%하에서 학생으로서의 자기평가에 따라 사제간의 친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7> 공부에 대한 흥미 정도

항목 \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흥미롭고 열심히 하고 싶다	빈도	26	43	52	17	21	23	25	69
	%	16.8	27.4	21.9	22.7	18.6	38.3	18.0	22.1
특정과목만 열심히 하고 싶다	빈도	76	58	97	37	56	21	57	134
	%	49.0	36.9	40.9	49.3	49.6	35.0	41.0	42.9
별로 흥미 없다	빈도	34	37	60	11	23	12	36	71
	%	21.9	23.6	25.3	14.7	20.4	20.0	25.9	22.8
공부가 지겹다	빈도	19	19	28	10	13	4	21	38
	%	12.3	12.1	11.8	13.3	11.5	6.7	15.1	12.2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721$ df=3 p=.081		$\chi^2=3.898$ df=3 p=.273		$\chi^2=14.607^*$ df=6 p=.024			

* p<0.05

<표 17>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로, 특정 과목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학생이 42.9%, 별로 흥미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2.8%, 학교 공부가 흥미롭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22.1%이었으며, 공부가 지겹다고 응답한 학생은 12.2%이었다.

독립성 검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학교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교(49.6%)와 남녀공학(41.0%) 학생들이 특정과목만 열심히 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학교(38.3%) 학생들은 공부가 흥미롭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18> 학교 규칙 준수 정도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잘 지키는 편이다	빈도	46	58	71	33	41	25	38	104
	%	29.7	36.9	30.0	44.0	36.3	41.7	27.3	33.3
보통이다	빈도	93	86	140	39	64	31	84	179
	%	60.0	54.8	59.1	52.0	56.6	51.7	60.4	57.4
잘 안 지키는 편이다	빈도	16	13	26	3	8	4	17	29
	%	10.3	8.3	11.0	4.0	7.1	6.7	12.2	9.3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956$ df=2 p=.376		$\chi^2=6.845^*$ df=2 p=.033		$\chi^2=5.953$ df=4 p=.203			

* p<0.05

<표 18>은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분석결과로, 자신은 학교 규칙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응답한 학생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잘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3.3%, 잘 안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성 검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학교 설립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 학교(30.0%) 학생보다 사립 학교(44.0%) 학생들이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교 학생 비행의 행태

1) 중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중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표 19>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가출	빈도	11	13	18	6	10	6	8	24
	%	7.1	8.3	7.6	8.0	8.8	10.0	5.8	7.7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빈도	39	38	55	22	27	13	37	77
	%	25.2	24.2	23.2	29.3	23.9	21.7	26.6	24.7
유흥업소 출입	빈도	7	0	3	4	6	0	1	7
	%	4.5	.0	1.3	5.3	5.3	.0	.7	2.2
성 관계 문란 행위	빈도	3	4	5	2	0	0	7	7
	%	1.9	2.5	2.1	2.7	.0	.0	5.0	2.2
폭력	빈도	9	0	9	0	6	0	3	9
	%	5.8	.0	3.8	.0	5.3	.0	2.2	2.9
절도	빈도	1	2	2	1	0	0	3	3
	%	.6	1.3	.8	1.3	.0	.0	2.2	1.0
흡연	빈도	52	79	108	23	37	39	55	131
	%	33.5	50.3	45.6	30.7	32.7	65.0	39.6	42.0
불량씨클	빈도	1	8	8	1	1	2	6	9
	%	.6	5.1	3.4	1.3	.9	3.3	4.3	2.9
음란 영상매체	빈도	9	1	7	3	6	0	4	10
	%	5.8	.6	3.0	4.0	5.3	.0	2.9	3.2
없다	빈도	23	12	22	13	20	0	15	35
	%	14.8	7.6	9.3	17.3	17.7	.0	10.8	11.2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7.771$ df=9 p=.000		$\chi^2=15.241$ df=9 p=.085		$\chi^2=43.667$ df=18 p=.001			

<표 19>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비행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는 흡연(42.0%)이었으며, 다음으로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라고 응답한 학생이

24.7%로 많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비행 행태는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표 20>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가출	빈도	40	40	62	18	22	8	50	80
	%	25.8	25.5	26.2	24.0	19.5	13.3	36.0	25.6
유종업소 출입	빈도	14	5	15	4	9	2	8	19
	%	9.0	3.2	6.3	5.3	8.0	3.3	5.8	6.1
성 관계 문란 행위	빈도	2	7	9	0	2	7	0	9
	%	1.3	4.5	3.8	.0	1.8	11.7	.0	2.9
폭력	빈도	7	8	15	0	7	7	1	15
	%	4.5	5.1	6.3	.0	6.2	11.7	.7	4.8
흡연 또는 음주	빈도	20	25	36	9	14	6	25	45
	%	12.9	15.9	15.2	12.0	12.4	10.0	18.0	14.4
본드 및 약물 복용	빈도	0	5	4	1	0	4	1	5
	%	.0	3.2	1.7	1.3	.0	6.7	.7	1.6
불량씨클	빈도	5	0	2	3	5	0	0	5
	%	3.2	.0	.8	4.0	4.4	.0	.0	1.6
음란 영상매체	빈도	24	16	32	8	21	8	11	40
	%	15.5	10.2	13.5	10.6	18.6	13.3	7.9	12.8
없다	빈도	43	51	62	32	33	18	43	94
	%	27.7	32.5	26.2	42.7	29.2	30.0	30.9	30.1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1.279$ df=9 p=.011		$\chi^2=18.326$ df=9 p=.032		$\chi^2=75.104$ df=18 p=.000			

<표 20>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정에서는 어떠한 비행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출 25.6%, 흡연 또는 음주 14.4%, 음란 영상매체 12.8% 순이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비행 행태는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중학생 비행 항목에 따른 동기 및 특성

본 절에서는 중학생들의 비행 행태인 가출, 빈번한 무단결석 및 조퇴, 유흥업소 출입, 성 문란 행위, 폭력, 절도 및 갈취, 흡연 및 음주, 본드 및 약물복용, 불량써클, 음란 영상 매체 등 10가지 비행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경험 여부, 동기, 행동 특성 등 비행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출

① 가출 경험 여부

<표 21> 가출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없다	빈도	93	77	124	46	64	26	80	170
	%	60.0	49.0	52.3	61.3	56.6	43.3	57.6	54.5
생각은 해 보았다	빈도	45	55	82	18	33	26	41	100
	%	29.0	35.0	34.6	24.0	29.2	43.3	29.5	32.1
있다	빈도	17	25	31	11	16	8	18	42
	%	11.0	15.9	13.1	14.7	14.2	13.3	12.9	13.5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017$ df=2 p=.134		$\chi^2=2.953$ df=2 p=.228		$\chi^2=4.726$ df=4 p=.317			

<표 21>은 학생들의 가출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3.5%로 나타났으며, 가출할 생각을 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2.1%로 중학생 중 45.6%가 가출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중학생 10명 중 적어도 1명은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가출 동기

<표 22> 가출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성적이 저조하여	빈도	1	1	2	0	1	0	1	2
	%	5.9	4.0	6.5	.0	6.3	.0	5.6	4.8
부모의 이혼, 재혼, 잦은 싸움 때문에	빈도	8	9	11	6	7	4	6	17
	%	47.1	36.0	35.5	54.5	43.8	50.0	33.3	40.5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	빈도	3	12	14	1	3	2	10	15
	%	17.6	48.0	45.2	9.1	18.8	25.0	55.6	35.7
호기심에서	빈도	2	2	2	2	2	2	0	4
	%	11.8	8.0	6.5	18.2	12.5	25.0	.0	9.5
기타	빈도	3	1	2	2	3	0	1	4
	%	17.6	4.0	6.5	18.2	18.8	.0	5.6	9.5
계	빈도	17	25	31	11	16	8	18	4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121$ df=4 p=.275		$\chi^2=6.742$ df=4 p=.150		$\chi^2=10.823$ df=8 p=.212			

<표 22>는 학생들의 가출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학생들의 40.5%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또는 잦은 싸움 때문에 가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도 35.7%

나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출 학생 행동의 특성

<표 23> 가출 학생 행동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18	34	39	13	15	12	25	52
	%	11.6	21.7	16.5	17.3	13.3	20.0	18.0	16.7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빈도	24	43	52	15	19	18	30	67
	%	15.5	27.4	21.9	20.0	16.8	30.0	21.6	21.5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빈도	10	5	10	5	8	2	5	15
	%	6.5	3.2	4.2	6.7	7.1	3.3	3.6	4.8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87	62	113	36	61	25	63	149
	%	56.1	39.5	47.7	48.0	54.0	41.7	45.3	47.8
평범하다	빈도	5	6	9	2	4	1	6	11
	%	3.2	3.8	3.8	2.7	3.5	1.7	4.3	3.5
기타	빈도	11	7	14	4	6	2	10	18
	%	7.1	4.5	5.9	5.3	5.3	3.3	7.2	5.8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7.140^{**}$ df=5 p=.004		$\chi^2=1.076$ df=5 p=.956		$\chi^2=9.946$ df=10 p=.445			

** p<0.01

<표 23>은 가출 학생 행동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출을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47.8%의 학생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가 21.5%,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가 16.7%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은 가출 학생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립성검증 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남학생들이 선생님이나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56.1%)고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이 외에도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27.4%)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21.7%)고 하였다. 그 외 학교 설립별이나 학교 형태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①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경험여부

<표 24>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없다	빈도	111	117	167	61	82	48	98	228
	%	71.6	74.5	70.5	81.3	72.6	80.0	70.5	73.1
생각은 해 보았다	빈도	18	20	33	5	13	8	17	38
	%	11.6	12.7	13.9	6.7	11.5	13.3	12.2	12.2
있다	빈도	26	20	37	9	18	4	24	46
	%	16.8	12.7	15.6	12.0	15.9	6.7	17.3	14.7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033$ df=2 p=.597		$\chi^2=3.889$ df=2 p=.143		$\chi^2=3.994$ df=4 p=.407			

<표 24>는 학생들의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로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7%이었으

며, 생각을 해 본 학생도 12.2%나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학생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②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동기

<표 25>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공부하기 싫거나 수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빈도	11	12	20	3	5	0	18	23
	%	42.3	60.0	54.1	33.3	27.8	.0	75.0	50.0
친구나 선배의 유혹으로	빈도	1	2	2	1	1	0	2	3
	%	3.8	10.0	5.4	11.1	5.6	.0	8.3	6.5
다른 곳을 배회하고 싶어서	빈도	5	0	3	2	5	0	0	5
	%	19.2	.0	8.1	22.2	27.8	.0	.0	10.9
부모나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빈도	3	1	3	1	3	0	1	4
	%	11.5	5.0	8.1	11.1	16.7	.0	4.2	8.7
기타	빈도	6	5	9	2	4	4	3	11
	%	23.1	25.0	24.3	22.2	22.2	100.0	12.5	23.9
계	빈도	26	20	37	9	18	4	24	4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784$ df=4 p=.216		$\chi^2=2.398$ df=4 p=.663		$\chi^2=28.205$ df=8 p=.000			

<표 25>는 학생들의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공부하기 싫거나 수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0%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다른 곳을 배회하고 싶어서(10.9%), 부모나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싶어서(8.7%), 기타(23.9%)로 음성서클의 폭행이 두려워서, 금품을 요구하는 친구를 피하려고,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학생의 특성

<표 26>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를 하는 학생들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47	38	59	26	39	16	30	85
	%	30.3	24.2	24.9	34.7	34.5	26.7	21.6	27.2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빈도	35	55	77	13	18	24	48	90
	%	22.6	35.0	32.5	17.3	15.9	40.0	34.5	28.8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빈도	8	5	8	5	6	0	7	13
	%	5.2	3.2	3.4	6.7	5.3	.0	5.0	4.2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이며 거짓말을 한다	빈도	53	47	74	26	42	16	42	100
	%	34.2	29.9	31.2	34.7	37.2	26.7	30.2	32.1
평범하다	빈도	3	4	5	2	2	0	5	7
	%	1.9	2.5	2.1	2.7	1.8	.0	3.6	2.2
기타	빈도	9	8	14	3	6	4	7	17
	%	5.8	5.1	5.9	4.0	5.3	6.7	5.0	5.4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639$ df=5 p=.249		$\chi^2=8.685$ df=5 p=.122		$\chi^2=22.039^*$ df=10 p=.015			

* p<0.05

<표 26>은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를 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이며 거짓말을 한다(32.1%)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28.8%),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27.2%)의 순이었으며,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등이 기타(5.4%)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학교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이

며 거짓말을 하는 것(37.2%)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여 학교(40.0%)와 남녀공학(34.5%)에서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 생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흥업소 출입

① 유흥업소 출입 여부

<표 27> 유흥업소 출입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없다	빈도	73	96	124	45	45	33	91	169
	%	47.1	61.1	52.3	60.0	39.8	55.0	65.5	54.2
생각은 해 보았다	빈도	13	12	21	4	6	4	15	25
	%	8.4	7.6	8.9	5.3	5.3	6.7	10.8	8.0
있다	빈도	69	49	92	26	62	23	33	118
	%	44.5	31.2	38.8	34.7	54.9	38.3	23.7	37.8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547^*$ df=2 p=.038		$\chi^2=1.765$ df=2 p=.414		$\chi^2=26.504^{***}$ df=4 p=.000			

* p<0.05, *** p<0.001

<표 27>은 자신의 유흥업소 출입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 학생 중 37.8%나 되었으며, 유흥업소에 갈 생각을 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 8.0%이었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과, 0.1%하에서 학교 형태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31.2%)보다는 남학생 (44.5%) 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 형태별

로는 남녀공학교(23.7%), 여학교(38.3%), 남학교(54.9%) 순으로 유홍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유홍업소 출입 동기

<표 28> 학생 자신의 유홍업소 출입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성적이 저조하여	빈도	1	0	0	1	1	0	0	1
	%	1.4	.0	.0	3.8	1.6	.0	.0	.8
화목하지 못한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빈도	1	1	2	0	1	0	1	2
	%	1.4	2.0	2.2	.0	1.6	.0	3.0	1.7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	빈도	50	42	74	18	44	23	25	92
	%	72.5	85.7	80.4	69.2	71.0	100.0	75.8	78.0
호기심에서	빈도	9	5	11	3	8	0	6	14
	%	13.0	10.2	12.0	11.5	12.9	.0	18.2	11.9
음성서클의 강요로	빈도	1	0	0	1	1	0	0	1
	%	1.4	.0	.0	3.8	1.6	.0	.0	.8
기타	빈도	6	1	4	3	6	0	1	7
	%	8.7	2.0	4.3	11.5	9.7	.0	3.0	5.9
무응답	빈도	1	0	1	0	1	0	0	1
	%	1.4	.0	1.1	.0	1.6	.0	.0	.8
계	빈도	69	49	92	26	62	23	33	11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169$ df=6 p=.522		$\chi^2=9.388$ df=6 p=.124		$\chi^2=17.655$ df=12 p=.408			

<표 28>은 학생 자신의 유홍업소 출입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상당수의 학생이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라고 응답(78.0%)하였으며, 다음으로 호기심에서(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유흥업소 출입 학생의 특성

<표 29> 유흥업소 출입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 학교	여 학교	남녀 공학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빈도	12	21	21	12	10	3	20	33
	%	7.7	13.4	8.9	16.0	8.8	5.0	14.4	10.6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 으며 선생님에게 반항적이다	빈도	13	29	36	6	7	21	14	42
	%	8.4	18.5	15.2	8.0	6.2	35.0	10.1	13.5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24	15	27	12	20	2	17	39
	%	15.5	9.6	11.4	16.0	17.7	3.3	12.2	12.5
만화나 비디오 춤추기 등을 즐긴다	빈도	67	69	111	25	46	24	66	136
	%	43.2	43.9	46.8	33.3	40.7	40.0	47.5	43.6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않는 학생들과 같다	빈도	22	13	28	7	17	6	12	35
	%	14.2	8.3	11.8	9.3	15.0	10.0	8.6	11.2
기타	빈도	17	10	14	13	13	4	10	27
	%	11.0	6.4	5.9	17.3	11.5	6.7	7.2	8.7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4.773^*$ df=5 p=.011		$\chi^2=17.191^{**}$ df=5 p=.004		$\chi^2=41.708^{***}$ df=10 p=.000			

* p<0.05, ** p<0.01, ***p<0.001

<표 29>는 유흥업소 출입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만화, 비디오, 춤추기 등을 즐긴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반항적이다가 13.5%,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가 12.5%로 나타났다으며,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같다고 응답한 학생도 11.2%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등이 기타로 나타

났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과 1%하에서 학교 설립
 별, 0.1%하에서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흥업소 출입학생의 특성이 만화나 비디오, 춤추기 등을 즐긴다는
 것 이외에 남학생(15.5%)이나 사립학교 학생(16.0%) 또는 남학교(17.7%)
 에서는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고 하였으나,
 여학생(18.5%)이나 국공립 학교 학생(15.2%) 또는 여학교(35.0%)에서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반항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성 문란 행위

① 성 문란 행위 경험 여부

<표 30> 성 문란 행위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없다	빈도	128	132	190	70	94	53	113	260
	%	82.6	84.1	80.2	93.3	83.2	88.3	81.3	83.3
있다	빈도	27	25	47	5	19	7	26	52
	%	17.4	15.9	19.8	6.7	16.8	11.7	18.7	16.7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0.126$ df=1 p=.723		$\chi^2=7.109^{**}$ df=1 p=.008		$\chi^2=1.498$ df=2 p=.473			

** p<0.01

<표 30>은 학생들의 성 문란 행위 경험여부 실태 분석 결과로 이성과
 입맞춤이나 성관계 등의 문란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6.7%이었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학교 설립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성 문란 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사립학교 학생(6.7%)보다 국·공립 학교 학생(19.8%)이 더 많았다.

② 성 문란 행위의 동기

<표 31> 성 문란 행위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어른 기분을 내려고	빈도	3	1	3	1	2	0	2	4
	%	11.1	4.0	6.4	20.0	10.5	.0	7.7	7.7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빈도	17	9	25	1	12	2	12	26
	%	63.0	36.0	53.2	20.0	63.2	28.6	46.2	50.0
음성씨클, 그룹미팅에서	빈도	6	15	18	3	4	5	12	21
	%	22.2	60.0	38.3	60.0	21.0	71.4	46.1	40.4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빈도	1	0	1	0	1	0	0	1
	%	3.7	.0	2.1	.0	5.3	.0	.0	1.9
계	빈도	27	25	47	5	19	7	26	5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1.688^*$ df=4 p=.020		$\chi^2=2.719$ df=4 p=.606		$\chi^2=12.605$ df=8 p=.126			

* p<0.05

<표 31>은 성 문란 행위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성씨클, 그룹 미팅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63.0%)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성과의 성 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데 비해 여학생(60.0%)들은 음성씨클이나 그룹 미팅에서 성관계 입맞춤 등과 같은 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 외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로는 응답자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성 문란 행위 경험 장소

<표 32> 성 문란 행위 경험 장소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집(자신이나 상대방의 집 등)	빈도	13	11	23	1	9	3	12	24
	%	48.1	44.0	48.9	20.0	47.4	42.9	46.2	46.2
여관이나 여인숙 등	빈도	1	1	2	0	1	0	1	2
	%	3.7	4.0	4.3	.0	5.3	.0	3.8	3.8
비디오 방	빈도	4	4	7	1	3	2	3	8
	%	14.8	16.0	14.9	20.0	15.8	28.6	11.5	15.4
공원이나 으스스한 장소	빈도	9	7	14	2	6	2	8	16
	%	33.3	28.0	29.8	40.0	31.6	28.6	30.8	30.8
기타	빈도	0	2	1	1	0	0	2	2
	%	.0	8.0	2.1	20.0	.0	.0	7.7	3.8
계	빈도	27	25	47	5	19	7	26	5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343$ df=4 p=.673		$\chi^2=5.016$ df=4 p=.286		$\chi^2=3.449$ df=8 p=.903			

<표 32>는 성 문란 행위 경험장소에 대한 분석결과로 자신이나 상대방의 집 등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경험하였다고 46.2%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공원이나 으스스한 장소가 30.8%, 비디오 방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성 문란 행위 학생의 행동 특성

<표 33> 성 문란 학생의 행동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 학교	여 학교	남녀 공학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빈도	26	24	39	11	18	10	22	50
	%	16.8	15.3	16.5	14.7	15.9	16.7	15.8	16.0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빈도	37	49	69	17	24	20	42	86
	%	23.9	31.2	29.1	22.7	21.2	33.3	30.2	27.6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빈도	2	2	2	2	2	0	2	4
	%	1.3	1.3	.8	2.7	1.8	.0	1.4	1.3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29	20	38	11	22	6	21	49
	%	18.7	12.7	16.0	14.7	19.5	10.0	15.1	15.7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40	33	53	20	31	16	26	73
	%	25.8	21.0	22.4	26.7	27.4	26.7	18.7	23.4
평범하다	빈도	21	29	36	14	16	8	26	50
	%	13.5	18.5	15.2	18.7	14.2	13.3	18.7	16.0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346$ df=5 p=.375		$\chi^2=3.398$ df=5 p=.639		$\chi^2=9.547$ df=10 p=.481			

<표 33>은 성 문란 행위 학생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23.4%,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16.0%)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문란 행위 경험 학생간의 특성

항목 \ 변인		성 문란 행위 경험 여부		계	
		없다	있다		
성 문란 행위 학생의 특성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빈도	42	8	50
		%	16.2	15.4	16.0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빈도	78	8	86
		%	30.0	15.4	27.6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빈도	4	0	4
		%	1.5	.0	1.3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46	3	49
		%	17.7	5.8	15.7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53	20	73
		%	20.4	38.5	23.4
	평범하다	빈도	37	13	50
		%	14.2	25.0	16.0
계		빈도	260	52	312
		%	100.0	100.0	100.0
		$\chi^2=17.285^{**}$ df=5 p=.004			

** p<0.01

<표 34>에서 성 문란 행위 경험 학생간의 특성을 연계시켜서 보면, 성 문란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성 문란 행위 학생의 특성을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 30.0%로 가장 많았으나, 성 문란 행위 경험 학생은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가 38.5%로 가장 많았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성 관계 문란 행위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⑤ 성 충동을 느끼는 상황

<표 35> 성 충동을 느끼는 상황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TV나 비디오에서 야한 장면을 보았을 때	빈도	69	66	106	29	50	30	55	135
	%	44.5	42.0	44.7	38.7	44.2	50.0	39.6	43.3
길거리에서 야한 간판이나 포스터를 보았을 때	빈도	4	1	4	1	3		2	5
	%	2.6	.6	1.7	1.3	2.7		1.4	1.6
음란 서적(잡지 만화 등)을 보았을 때	빈도	22	21	33	10	16	10	17	43
	%	14.2	13.4	13.9	13.3	14.2	16.7	12.2	13.8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이를 보았을 때	빈도	42	4	38	8	31	2	13	46
	%	27.1	2.5	16.0	10.7	27.4	3.3	9.4	14.7
기타	빈도	6	9	6	9	6	2	7	15
	%	3.9	5.7	2.5	12.0	5.3	3.3	5.0	4.8
없다	빈도	12	56	50	18	7	16	45	68
	%	7.7	35.7	21.1	24.0	6.2	26.7	32.4	21.8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2.342^{***}$ df=5 p=.000		$\chi^2=12.499^{**}$ df=5 p=.029		$\chi^2=44.611^{***}$ df=10 p=.000			

** p<0.01, *** p<0.001

<표 35>는 학생들이 성충동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장 많은 학생이 TV나 비디오에서 야한 장면을 보았을 때라고 응답(43.3%)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이를 보았을 때(14.7%), 음란서적을 보았을 때(13.8%)로 나타났으며, 성충동을 느낄 때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21.8%로 많았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학교설립별, 0.1%하에서 성별,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7.7%)에 비해 여학생(35.7%) 중에 성충동을 느낄 때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남학교(6.2%), 여학교(26.7%), 남녀공학(32.4%) 순으로 성충동을 느낄 때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설립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5) 폭력

① 폭행 경험여부

<표 36> 폭행을 당한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없다	빈도	105	142	188	59	78	58	111	247
	%	67.7	90.4	79.3	78.7	69.0	96.7	79.9	79.2
있다	빈도	50	15	49	16	35	2	28	65
	%	32.3	9.6	20.7	21.3	31.0	3.3	20.1	20.8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4.377^{***}$ df=1 p=.000		$\chi^2=0.015$ df=1 p=.903		$\chi^2=18.226^{***}$ df=2 p=.000			

*** p<0.001

<표 36>은 폭행을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타인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20.8%로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0.1%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9.6%)에 비해 남학생(32.3%)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여학교(3.3%), 남녀공학(20.1%), 남학교(31.0%) 순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폭행의 가해 또는 피해의 원인

<표 37> 폭행의 가해 또는 피해의 원인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서	빈도	23	17	35	5	14	6	20	40
	%	41.1	65.4	53.8	29.4	35.0	75.0	58.8	48.8
요구하는 금품을 거절해서	빈도	3	1	3	1	2	0	2	4
	%	5.4	3.8	4.6	5.9	5.0	.0	5.9	4.9
자신이나 친한 친구의 행동을 윗사람에게 고자질해서	빈도	5	1	5	1	5	0	1	6
	%	5.9	3.8	7.7	5.9	12.5	.0	2.9	7.3
좋은 환경과 공부를 잘해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빈도	17	5	17	5	13	2	7	22
	%	30.3	19.2	26.1	29.4	32.5	25.0	20.5	26.8
기타	빈도	8	2	5	5	5	0	6	15
	%	14.3	7.7	7.7	29.4	15.0	.0	11.8	12.2
계	빈도	44	17	47	14	37	6	18	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476$ df=4 p=.483		$\chi^2=7.465$ df=4 p=.188		$\chi^2=13.777$ df=8 p=.183			

<표 37>은 폭행의 가해 또는 폭행을 입은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로 폭행을 사용하는 학생들 중 48.8%가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26.8%가 좋은 환경과 공부를 잘해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로 왕따(잘난척, 있는척, 예쁜척하는 학생을 따돌리는 것)가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폭력 학생의 특성

<표 38> 폭력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빈도	11	14	17	8	8	2	15	25
	%	7.1	8.9	7.2	10.7	7.1	3.3	10.8	8.0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께 반항한다	빈도	45	59	87	17	30	24	50	104
	%	29.0	37.6	36.7	22.7	26.6	40.0	36.0	33.3
수업·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11	16	19	8	11	4	12	27
	%	7.1	10.1	8.0	10.7	9.8	6.6	8.6	8.6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빈도	86	68	112	42	62	30	62	154
	%	55.5	43.3	47.3	56.0	54.9	50.0	44.6	49.4
무응답	빈도	2	0	2	0	2	0	0	2
	%	1.3	.0	.8	.0	1.8	.0	.0	.6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964$ df=4 p=.241		$\chi^2=6.689$ df=4 p=.351		$\chi^2=13.021$ df=8 p=.368			

<표 38>은 폭력 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이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49.4%)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밖에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께 반항한다(33.3%), 수업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8.6%)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절도 및 갈취

① 가정에서의 절도 및 갈취 경험 여부

<표 39> 가정에서 절도 및 갈취를 당한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혀 없다	빈도	76	100	128	48	62	39	75	176
	%	49.0	63.7	54.0	64.0	54.9	65.0	54.0	56.4
한 두 번 있다	빈도	72	49	95	26	46	17	58	121
	%	46.5	31.2	40.1	34.7	40.7	28.3	41.7	38.8
자주 있다	빈도	7	8	14	1	5	4	6	15
	%	4.5	5.1	5.9	1.3	4.4	6.7	4.3	4.8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699^*$ df=2 p=.021		$\chi^2=3.918$ df=2 p=.141		$\chi^2=3.624$ df=4 p=.459			

* p<0.05

<표 39>는 가정에서 절도 및 갈취를 당한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56.4%이었으며, 한 두 번 있다 38.8%, 자주 있다 4.8%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3.6%의 학생이 가정에서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는데, 여학생(36.3%)에 비해 남학생(51.0%) 중에 가정에서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교내의 절도 및 갈취 경험 여부

<표 40> 학교내의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혀 없다	빈도	111	140	190	61	76	54	121	251
	%	71.6	89.2	80.2	81.3	67.3	90.0	87.1	80.4
한 두 번 있다	빈도	39	13	40	12	32	4	16	52
	%	25.2	8.3	16.9	16.0	28.3	6.7	11.5	16.7
자주 있다	빈도	5	4	7	2	5	2	2	9
	%	3.2	2.5	3.0	2.7	4.4	3.3	1.4	2.9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6.450^{***}$ df=2 p=.000		$\chi^2=0.052$ df=2 p=.974		$\chi^2=20.878^{***}$ df=4 p=.000			

*** p<0.001

<표 40>은 학교내의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80.4%로 가장 많았으며, 한 두 번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6.7%, 자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내의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9.6%이었으며,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0.1%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10.8%)에 비해 남학생(28.4%) 중에 학교내의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여학교(10.0%), 남녀공학(12.9%), 남학교(32.7%) 순으로 학교내

의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절도 및 갈취 동기

<표 41>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하게 된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 학교	여 학교	남녀 공학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이어서	빈도	14	2	13	3	13	0	3	16
	%	31.8	11.8	27.7	21.4	35.1	.0	16.7	26.2
용돈이 필요해서	빈도	13	14	24	3	9	6	12	27
	%	29.5	82.4	51.1	21.4	24.3	100.0	66.7	44.3
힘을 과시해 보려고	빈도	4	0	1	3	3	0	1	4
	%	9.1	.0	2.1	21.4	8.1	.0	5.6	6.6
유용비에 쓰려고	빈도	2	0	2	0	2	0	0	2
	%	4.5	.0	4.3	.0	5.4	.0	.0	3.3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빈도	6	1	4	3	6	0	1	7
	%	13.6	5.9	8.5	21.4	16.2	.0	5.6	11.5
계	빈도	44	17	47	14	37	6	18	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6.849$ df=4 p=0.000		$\chi^2=5.240$ df=4 p=.387		$\chi^2=38.622$ df=8 p=.000			

<표 41>은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26.2%로,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가학적 행위가 11.5%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절도 및 갈취 학생의 특성

<표 42> 절도 및 갈취 행위를 하는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수업·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27	19	32	14	20	6	20	46
	%	17.4	12.1	13.5	18.7	17.7	10.0	14.3	14.8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께 반항한다	빈도	55	64	90	29	37	28	54	119
	%	35.5	40.7	38.0	38.7	32.8	46.7	38.8	38.1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빈도	65	62	100	27	50	24	53	127
	%	41.9	39.5	42.2	36.0	44.2	40.0	38.1	40.7
평범하다	빈도	8	12	15	5	6	2	12	20
	%	5.2	7.6	6.3	6.7	5.3	3.3	8.6	6.4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610$ df=3 p=.126		$\chi^2=2.688$ df=3 p=.748		$\chi^2=17.421$ df=6 p=.066			

<표 42>는 절도 및 갈취의 비행 행동을 하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인식(40.7%)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께 반항한다(38.1%),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14.8%)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흡연 및 음주

① 흡연 경험여부

<표 43> 흡연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혀 없다	빈도	88	117	148	57	70	50	85	205
	%	56.8	74.5	62.4	76.0	61.9	83.3	61.2	65.7
한 두 번 있다	빈도	22	15	30	7	14	4	19	37
	%	14.2	9.6	12.7	9.3	12.4	6.7	13.7	11.9
자주 있다	빈도	23	13	32	4	14	4	18	36
	%	14.8	8.3	13.5	5.3	12.4	6.7	12.9	11.5
예전에 피웠지만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빈도	22	12	27	7	15	2	17	34
	%	14.2	7.6	11.4	9.3	13.3	3.3	12.2	10.9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1.133^*$ df=3 p=.011		$\chi^2=5.640$ df=3 p=.130		$\chi^2=10.802$ df=6 p=.095			

* p<0.05

<표 43>은 흡연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흡연을 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65.7%이었으며, 한 두 번 있다 11.9%, 자주 있다 11.5%, 예전에는 피웠지만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10.9%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4.3%가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25.5%)에 비해 남학생(43.2%) 중에 흡연을 경험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음주 경험 여부

<표 44> 음주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혀 없다	빈도	47	52	68	31	38	25	36	99
	%	30.3	33.1	28.7	41.3	33.6	41.7	25.9	31.7
한 두번 있다	빈도	75	70	116	29	51	23	71	145
	%	48.4	44.6	48.9	38.7	45.1	38.3	51.1	46.5
자주 있다	빈도	24	22	36	10	19	8	19	46
	%	15.5	14.0	15.2	13.3	16.8	13.3	13.7	14.7
예전엔 마셨지만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빈도	9	13	17	5	5	4	13	22
	%	5.8	8.3	7.2	6.7	4.4	6.7	9.4	7.1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226$ df=3 p=.747		$\chi^2=4.318$ df=3 p=.229		$\chi^2=7.699$ df=6 p=.261			

<표 44>는 학생들의 음주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술을 한 두 번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6.5%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마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1.7%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68.3%의 학생이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중학생 10명 중 6-7명이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흡연 또는 음주 동기

<표 45> 흡연이나 음주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호기심에서	빈도	61	38	75	24	45	13	41	99
	%	54.0	36.2	43.1	54.5	57.0	37.1	39.4	45.4
어른 기분을 내려고	빈도	3	7	9	1	3	0	7	10
	%	2.7	6.7	5.2	2.3	3.8	.0	6.7	4.6
친구들이 하나까	빈도	10	20	24	6	9	6	15	30
	%	8.8	19.0	13.8	13.6	11.4	17.1	14.4	13.8
불량 씨클의 강요로	빈도	12	16	23	5	5	8	15	28
	%	10.6	15.2	13.2	11.4	6.3	22.9	14.4	12.8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빈도	15	16	27	4	10	6	15	31
	%	13.3	15.2	15.5	9.1	12.7	17.1	14.4	14.2
이유없이	빈도	7	4	8	3	4	0	7	11
	%	6.2	3.8	4.6	6.8	5.1	.0	6.7	5.0
기타	빈도	5	4	8	1	3	2	4	9
	%	4.4	3.8	4.6	2.3	3.8	5.7	3.8	4.1
계	빈도	113	105	174	44	79	35	104	21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8.36^{**}$ df=6 p=.003		$\chi^2=3.574^{**}$ df=6 p=.007		$\chi^2=15.569^{***}$ df=12 p=.000			

** p<0.01, *** p<0.001

<표 45>는 학생들의 흡연이나 음주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호기심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가 14.2%, 친구들이 하나까가 13.8%, 불량 씨클의 강요로가 12.8%로 타나났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성별과 학교 설립별로, 0.1%하에서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호기심(54.0%)이 흡연이나 음주의 주 동

기였지만 여학생들은 호기심(36.2%)이외에 친구들이 하니까(19.0%) 따라서 하며, 학교 설립별로는 호기심 이외에 사립 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이 하니까(13.6%), 국·공립 학교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15.5%)하며, 학교 형태별로는 전체적으로 호기심이 주 원인이었으나 여 학교에서는 불량써클의 강요에 의해 하는 학생도 22.9%나 되었다.

④ 흡연 또는 음주 학생의 특성

<표 46> 흡연 및 음주를 하는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 학교	여 학교	남녀 공학	
지각을 자주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	빈도	23	16	25	14	16	4	19	39
	%	14.8	10.2	10.5	18.7	14.2	6.7	13.7	12.5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59	29	64	24	46	9	33	88
	%	38.1	18.5	27.0	32.0	40.7	15.0	23.7	28.2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빈도	10	4	9	5	8	2	4	14
	%	6.5	2.5	3.8	6.7	7.1	3.3	2.9	4.5
향이 강한 로션이나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빈도	45	93	113	25	29	43	66	138
	%	29.0	59.2	47.7	33.3	25.7	71.7	47.5	44.2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8	2	6	4	8	0	2	10
	%	5.2	1.3	2.5	5.3	7.1	.0	1.4	3.2
다른 학생들과 같다.	빈도	10	13	20	3	6	2	15	23
	%	6.5	8.3	8.4	4.0	5.3	3.3	10.8	7.4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4.731^{***}$ df=5 p=.000		$\chi^2=10.122$ df=5 p=.072		$\chi^2=47.765^{***}$ df=10 p=.000			

*** p<0.001

<표 46>은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향이 강한 로션이나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44.2%),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다(28.2%), 지각을 자주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12.5%)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0.1%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중에는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의 특성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38.1%)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 중에는 향이 강한 로션이나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59.2%)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별로는 남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40.7%)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교(71.7%)와 남녀공학(47.5%)에서는 향이 강한 로션이나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8) 본드 및 약물 복용

①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 여부

<표 47>은 학생 자신의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학생들 중 본드 및 약물복용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 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1.0%, 현재 한 두 번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6.1%, 현재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312명 중 2명으로 0.6%이었다. 이러한 반

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 학교	여 학교	남녀 공학	
전혀 없다	빈도	141	147	217	71	99	56	133	288
	%	91.0	93.6	91.6	94.7	87.6	93.3	95.7	92.3
한 두번 있다	빈도	10	9	18	1	10	4	5	19
	%	6.5	5.7	7.6	1.3	8.8	6.7	3.6	6.1
자주 있다	빈도	2	0	0	2	2	0	0	2
	%	1.3	.0	.0	2.7	1.8	.0	.0	.6
예전엔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빈도	2	1	2	1	2	0	1	3
	%	1.3	.6	.8	1.3	1.8	.0	.7	1.0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498$ df=3 p=.476		$\chi^2=10.189$ df=3 p=.017		$\chi^2=8.265$ df=6 p=.219			

② 본드 및 약물복용 동기

<표 48>은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친구들이 하니까 호기심에서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3.3%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성적이 저조하여	빈도	3	0	3	0	3	0	0	3
	%	20.0	.0	15.0	.0	20.0	.0	.0	12.5
부모이혼·재혼, 잘은 싸움 때문에	빈도	1	0	1	0	1	0	0	1
	%	6.7	.0	5.0	.0	6.7	.0	.0	4.2
친구들이 피우니까 호기심에서	빈도	4	5	8	1	4	4	1	9
	%	26.7	55.6	40.0	25.0	26.7	100.0	20.0	37.5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	빈도	2	0	1	1	2	0	0	2
	%	13.3	.0	5.0	25.0	13.3	.0	.0	8.3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빈도	4	4	7	1	4	0	4	8
	%	26.7	44.4	35.0	25.0	26.7	.0	80.0	33.3
무응답	빈도	1	0	0	1	1	0	0	1
	%	6.7	.0	.0	25.0	6.7	.0	.0	4.2
계	빈도	15	9	20	4	15	4	5	2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985$ df=5 p=.308		$\chi^2=7.700$ df=5 p=.174		$\chi^2=14.044$ df=10 p=.171			

③ 본드 및 약물복용 학생의 특성

<표 49>은 본드 및 약물복용 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학생의 성과 학교 형태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본드 및 약물복용 학생의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은 멍한 표정이나 상태로 있을 때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23.4%나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본드 및 약물복용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지각을 자주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	빈도	14	25	35	4	9	8	22	39
	%	9.0	15.9	14.8	5.3	8.0	13.3	15.8	12.5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40	33	56	17	33	13	27	73
	%	25.8	21.0	23.6	22.7	29.2	21.7	19.4	23.4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빈도	15	3	15	3	11	0	7	18
	%	9.7	1.9	6.3	4.0	9.7	.0	5.0	5.8
멍한 표정이나 상태로 있을 때가 많다	빈도	53	66	82	37	35	25	59	119
	%	34.2	42.0	34.6	49.3	31.0	41.7	42.4	38.1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9	2	8	3	8	2	1	11
	%	5.8	1.3	3.4	4.0	7.1	3.3	0.7	3.5
평범하다	빈도	15	28	33	10	9	12	22	43
	%	9.7	17.8	13.9	13.3	8.0	20.0	15.8	13.8
무응답	빈도	9	0	8	1	8	0	1	9
	%	5.8	.0	3.4	1.3	7.1	.0	0.7	2.9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0.567$ df=6 p=.000		$\chi^2=8.759$ df=6 p=.188		$\chi^2=37.753$ pf=12 p=.000			

(9) 불량 씨클

① 불량씨클 가입 경험 여부

<표 50>는 학생들의 불량씨클 가입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현재 불량씨클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2.6%이었으며, 한때 가담하였으나 현재는 탈퇴한 학생은 5.1%였으며,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불량써클 가입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빈도	8	0	2	6	7	0	1	8
	%	5.2	.0	.8	8.0	6.2	.0	.7	2.6
한 때 가담하였으나 현재는 탈퇴하였다	빈도	11	5	13	3	10	2	4	16
	%	7.1	3.2	5.5	4.0	8.8	3.3	2.9	5.1
불량 써클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다	빈도	136	152	222	66	96	58	134	288
	%	87.7	96.8	93.7	88.0	85.0	96.7	96.4	92.3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1.127^{**}$ df=2 p=.004		$\chi^2=11.822^{**}$ df=2 p=.003		$\chi^2=15.031^{**}$ df=4 p=.005			

** p<0.01

성별로는 여학생(3.2%)보다 남학생(12.3%)이 많았으며, 학교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 학생(6.3%)보다 사립학교 학생(12.0%) 중에 불량써클에 가담한 학생이 많고, 또한 국·공립학교 학생 중에는 예전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5.5%)이 더 많은 반면, 사립학교 학생 중에는 현재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생(8.0%)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형태별로는 여학교(3.3%)나 남녀공학(3.6%)보다 남학교(15.0%) 학생 중에 불량써클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불량써클 가입 동기

<표 51>은 불량써클 가입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 학생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선배의 강압 때문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0%이었다. 그 밖에 성적과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심리(12.5%), 호기심 또는 순간적인 마음의 동요 때문에(12.5%) 등이 학생들의 불량써클에 가입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불량써클 가입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친구의 권유로	빈도	7	2	3	6	7	0	2	9
	%	36.8	40.0	20.0	66.7	41.2	.0	40.0	37.5
선배의 강압 때문에	빈도	3	3	6	0	3	2	1	6
	%	15.8	60.0	40.0	.0	17.6	100.0	20.0	25.0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빈도	1	0	0	1	1	0	0	1
	%	5.3	.0	.0	11.1	5.9	.0	.0	4.2
성적과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심리로	빈도	3	0	1	2	3	0	0	3
	%	15.8	.0	6.7	22.2	17.6	.0	.0	12.5
호기심 또는 순간적인 마음의 동요 때문에	빈도	3	0	3	0	2	0	1	3
	%	15.8	.0	20.0	.0	11.8	.0	20.0	12.5
무응답	빈도	2	0	2	0	1	0	1	2
	%	10.5	.0	13.3	.0	5.9	.0	20.0	8.3
계	빈도	19	5	15	9	17	2	5	2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474$ df=5 p=.361		$\chi^2=12.622^*$ df=5 p=.027		$\chi^2=8.973$ df=10 p=.535			

* p<0.05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학교 설립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학교 학생들 중에는 선배의 강압 때문에 불량써클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40.0%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학생 중에는 친구의 권유로 불량써클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66.7% 가장 많았다.

③ 불량써클 가담 학생의 특성

<표 52> 불량써클 가담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빈도	23	15	28	10	17	4	17	38
	%	14.8	9.6	11.8	13.3	15.0	6.7	12.2	12.2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빈도	26	32	44	14	18	15	25	58
	%	16.8	20.4	18.6	18.7	15.9	25.0	18.0	18.6
수업·휴식시간에 음란· 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13	14	24	3	11	8	8	27
	%	8.4	8.9	10.2	4.0	9.7	13.3	5.7	8.7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 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41	28	52	17	29	6	34	69
	%	26.5	17.8	21.9	22.7	25.7	10.0	24.5	22.1
이유 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빈도	43	50	72	21	31	25	37	93
	%	27.7	31.8	30.4	28.0	27.4	41.7	26.6	29.8
평범하다	빈도	9	18	17	10	7	2	18	27
	%	5.8	11.5	7.2	13.3	6.2	3.3	12.9	8.7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7.269^{**}$ df=5 p=.008		$\chi^2=6.112$ df=5 p=.411		$\chi^2=32.712^{**}$ df=10 p=.001			

** p<0.01

<표 52>는 불량써클 가담 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29.8%),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22.1%)가 가장 큰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 이외에 남학생(26.5%), 남학교(25.7%), 남녀공학(24.5%) 학생들은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20.4%) 또는 여학교(25.0%)에서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0)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①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경험 여부

<표 53>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경험 여부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혀 없다	빈도	18	69	64	23	17	29	41	87
	%	11.6	43.9	27.0	30.7	15.0	48.3	29.5	27.9
한 두 번 있다	빈도	72	78	114	36	51	28	71	150
	%	46.5	49.7	48.1	48.0	45.1	46.7	51.1	48.1
자주 있다	빈도	65	10	59	16	45	3	27	75
	%	41.9	6.4	24.9	21.3	39.8	5.0	19.4	24.0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0.460^{***}$ df=2 p=.000		$\chi^2=0.575$ df=2 p=.750		$\chi^2=38.288^{***}$ df=4 p=.000			

*** p<0.001

<표 53>은 학생 자신의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접촉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를 한 두 번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8.1%,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27.9%, 자주 접한다 24.0%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0.1%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6.4%)에 비해 남학생

(41.9%) 중에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남학교(85.0%), 남녀공학(70.5%), 여학교(51.7%) 순으로 나타났다.

②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동기

<표 54>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접촉 동기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빈도	7	5	11	1	4	0	8	12
	%	5.1	5.7	6.4	1.9	4.2	.0	8.2	5.3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빈도	65	12	58	19	52	6	19	77
	%	47.4	13.6	33.5	36.5	54.2	19.4	19.4	34.2
어른 기분을 내기 위해서	빈도	1	0	1	0	1	0	0	1
	%	.7	.0	.6	.0	1.0	.0	.0	.4
재미 있을 것 같아서	빈도	49	37	72	14	28	13	45	86
	%	35.8	42.0	41.6	26.9	29.2	41.9	45.9	38.2
길거리나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빈도	15	34	31	18	11	12	26	49
	%	10.9	38.6	17.9	34.6	11.5	38.7	26.5	21.8
계	빈도	137	88	173	52	96	31	98	2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7.986^{***}$ df=4 p=0.000		$\chi^2=9.258$ df=4 p=.055		$\chi^2=37.658^{***}$ df=8 p=.000			

*** p<0.001

<표 54>는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38.2%),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34.2%)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를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밖에도 길거리나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21.8%) 경험하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0.1%하에서 성별과 학교 형태별로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에 경험하게 된 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중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서가 47.4%로 가장 많은데 비해 여학생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42.0%로 가장 많았다. 학교 형태별로는 남학교 학생들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54.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교(41.9%)와 남녀공학(45.9%) 학생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③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접촉 학생의 특성

<표 55>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를 보는 학생의 특성

항목	변인	성별		학교 설립별		학교 형태별			계
		남자	여자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폭력만화나 잡지를 본다	빈도	41	26	51	16	29	4	34	67
	%	26.5	16.6	21.5	21.3	25.7	6.7	24.5	21.5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빈도	35	38	53	20	26	19	28	73
	%	22.6	24.2	22.4	26.7	23.0	31.7	20.1	23.4
지각을 자주 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	빈도	21	25	38	8	14	9	23	46
	%	13.5	15.9	16.0	10.7	12.4	15.0	16.5	14.7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빈도	18	11	22	7	15	2	12	29
	%	11.6	7.0	9.3	9.3	13.3	3.3	8.6	9.3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빈도	13	11	18	6	10	8	6	24
	%	8.4	7.0	7.6	8.0	8.8	13.3	4.3	7.7
평범하다	빈도	27	46	55	18	19	18	36	73
	%	17.4	29.3	23.2	24.0	16.8	30.0	25.9	23.4
계	빈도	155	157	237	75	113	60	139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0.618$ df=5 p=.059		$\chi^2=1.593$ df=5 p=.902		$\chi^2=23.357^*$ df=10 p=.010			

* p<0.05

<표 55>는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를 보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로 상당수가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23.4%), 수업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21.5%)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학생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23.4%나 되었다.

독립성 검증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학교 형태별로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를 보는 학생의 특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학교(25.7%)나 남녀 공학교(24.5%)에서는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보는 학생이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에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31.7%)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 중학생들의 자타인식 및 환경적응 문제와 비행 행태와의 관계

<표 56> 중학생들의 자타인식 및 환경적응 문제와 비행 행태와의 상관관계

	A01	A02	A03	A04	A05	A06	A07	A08	A09	A10
B11	.211** (0.000)	.303** (0.000)	-.136* (.016)	.085 (.135)	-.031 (.589)	.197** (0.000)	.258** (0.000)	-.247** (0.000)	.370** (0.000)	.324** (0.000)
B21	.435** (0.000)	.269** (0.000)	.007 (.896)	.110 (.052)	.097 (.087)	.290** (0.000)	.313** (0.000)	-.156** (.006)	.231** (0.000)	.218** (0.000)
B31	.242** (0.000)	.278** (0.000)	.016 (.772)	.150** (.008)	-.074 (.193)	.112* (.047)	.236** (0.000)	-.091 (.107)	.166** (.003)	.126* (.026)
B41	.300** (0.000)	.262** (0.000)	-.035 (.534)	.119* (.036)	-.055 (.337)	.081 (.156)	.239** (0.000)	-.049 (.386)	.211** (0.000)	.213** (0.000)
B51	.206** (0.000)	.203** (0.000)	.000 (.999)	.037 (.516)	-.018 (.757)	.126* (.026)	.124* (.029)	-.071 (.208)	.064 (.263)	.135* (.017)
B61	.234** (0.000)	.165** (0.004)	-.026 (.642)	.093 (.101)	-.001 (.993)	.059 (.295)	.123* (.023)	-.082 (.147)	.163** (.004)	.153** (.007)
B71	.362** (0.000)	.297** (0.000)	.044 (.436)	.035 (.539)	.034 (.548)	.169** (.003)	.279** (0.000)	-.051 (.372)	.181** (.001)	.133* (.019)
B73	.352** (0.000)	.326** (0.000)	.024 (.672)	.100 (.077)	-.001 (.991)	.191** (.001)	.304** (0.000)	-.040 (.478)	.126* (.026)	.063 (.269)
B81	.036 (.527)	.033 (.559)	.042 (.464)	.003 (.960)	.001 (.989)	.105 (.065)	.028 (.625)	.025 (.660)	.147** (.009)	.055 (.334)
B91	-.038 (.502)	.040 (.477)	.080 (.160)	.012 (.839)	-.182** (.001)	-.142* (.012)	-.063 (.265)	.044 (.438)	-.139* (.014)	-.129* (.023)
B101	.199** (0.000)	.087 (.124)	.076 (.179)	.034 (.544)	.037 (.512)	.083 (.141)	.184** (0.001)	.012 (.835)	-.006 (.911)	.062 (.276)

* p<0.05, ** p<0.01

※ A01: 자아평가, A02: 타인에 의한 평가, A03: 가정에서의 자신의 중요성
 A04: 집에서 보내는 시간, A05: 사제간의 친분정도, A06: 공부에 대한 흥미도
 A07: 교칙 준수정도, A08: 부모님의 지도방침, A09: 자신의 가정에 대한 평가
 A10: 가족간의 유대관계
 B11: 가출, B21: 빈번한 무단결석 및 조퇴, B31: 유흥업소 출입
 B41: 성 문란행위 B51: 폭력, B61: 절도 및 갈취, B71: 흡연, B73: 음주
 B81: 본드 및 약물복용, B91: 불량써클, B101: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표 56>에 열거된 10개 항목(B11~B101)의 중학생 자타인식과 환경적
 응 문제에 따른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가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불량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일수록($r=0.21$), 타인에
 의해서도 불량하다고 평가받는 학생일수록($r=0.30$),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일수록($r=0.20$), 학교 교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일수록
 ($r=0.26$),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지도방법이 강경할수록($r=-0.25$), 가정에 대
 한 불만이 많은 학생일수록($r=0.37$),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학생일수록($r=0.32$) 가출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학생들은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44$), 타인이 자신
 을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할수록($r=0.27$), 학교에서의 공부
 에 흥미가 없는 학생일수록($r=0.29$), 학교 교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일
 수록($r=0.31$), 현재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r=0.23$),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r=0.22$) 빈번

한 무단 결석과 조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흥업소 출입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24$), 타인이 자신을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할수록($r=0.28$), 학교 교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일수록($r=0.24$)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 문란 행위

학생들은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30$), 타인이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할수록($r=0.26$), 학교 교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일수록($r=0.24$),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일수록($r=0.21$),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학생일수록($r=0.21$) 이성과의 문란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폭력

학생들은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21$), 타인이 자신을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할수록($r=0.20$) 폭행을 하였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절도 및 갈취

학생들은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24$) 절도 및 갈취의 행동을 취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흡연 및 음주

학생들은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36$), 타인에 의해서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r=0.30$),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일수록($r=0.28$)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생각할수록($r=0.35$), 타인에 의해서 불량한 학생이라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r=0.33$),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드 및 약물 복용

본드 및 약물복용 경험 여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9) 불량써클 가입

불량써클 가입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였다.

10)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는 몇 항목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견해에 있어 그 정도가 미비하였다.

I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 비행 원인 및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였다. 이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요약

첫째, 중학교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행유형중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은 흡연(42.0%)이었으며,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은 가출(25.6%)이었다. 그러나, 실제 행해지고 있는 비행 경험률은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와의 접촉(72.1%)이며, 다음으로 음주(68.3%), 가정에서의 절도(43.6%), 유흥업소 출입(37.8%), 흡연(3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 비행유형별 동기는 (1) 가출은 부모의 이혼이나 잦은 싸움때문(40.5%)이거나,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35.7%)이며 (2)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는 공부하기 싫거나 수업에 대한 두려움(50.0%)때문이었으며 (3) 유흥업소 출입 동기는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78.0), 호기심에서(11.9%)로 나타났다. (4) 성 문란 행위,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접촉행위를 하게된 동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50.0%), 음성써클그룹미팅(40.4%), 재미있을 것 같아서(38.2%)였으며 (5) 절도 및 갈취 원인은 용돈이 필요해서(44.3%),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이어서(26.2%)였으며, (6) 폭력을 사용하는 원인은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서(48.8%), 좋은 환경과 공부를 잘해 선생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26.8%)으로 나타났으며 (7) 흡연 및 음주 동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45.4%), 정신적 고통의

해소(14.2%)로 나타났으며, (8) 본드 및 약물 복용의 원인은 정신적 고통의 해소(33.3%),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게 되었다(37.5%)로 나타났으며 (9) 불량써클 가입 원인은 친구(37.5%)나 선배의 강압(25.0%), 성적이나 지나친 간섭에 의한 반항(12.5%), 순간적인 마음의 동요(12.5%)로 나타났으며 (10)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 매체 접촉 원인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38.2%), 이성에 대한 호기심(34.2%) 때문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비행행위의 실태는 학교 형태별로는 남학교의 경우 음란 영상매체, 폭력, 유흥업소 출입, 여학교에서는 흡연 및 음주, 성문란 행위, 남녀공학에서는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불량 써클, 폭력 등의 비행 행태를 많이 접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특성은 남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숙제를 안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며,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여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강한 로손이나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 설립별로는 비행학생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은 청소년 또는 중학생의 비행행태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가정·학교·사회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비행유형별 경험과 동기 및 특성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내용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학생들의 비행동기와 특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들의 가출·빈번한 결석 및 조퇴원인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또는 잦은 싸움 등에 의한 삭막한 집안 분위기가 싫거나 공부하기가 싫어서 또는 수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연계성 있는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의 유흥업소 출입원인은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이성과의 문란 행위 원인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의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심에서 비롯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못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킴과 동시에 자유로운 상태에게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생의 폭력 및 절도·갈취 등의 원인은 용돈이 필요해서,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서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실제로 상대방이 가진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 빼앗고 만족해하는 일종의 가학적 행위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류의 폭력, 절도 행위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어 그에 적합한 지도책을 세워 지도해야 한다.

넷째, 중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본드와 약물사용 경험의 원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함인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금하기만 하면 오히려 반발심과 죄책감의 형성등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는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

추도록 노력하여 학생과의 개인 및 집단 상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접촉원인은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막연한 흥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갑자기 범람한 퇴폐적인 영상매체나 또는 쾌락추구적 사회풍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방지하면 모방심리에 의하여 나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르지 못한 성인이나 부도덕한 연예인들을 모방하여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3.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학생들을 건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대비책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네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이 학생 비행 예방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비행 전문 상담기관이 활성화되어야겠고 학교를 벗어난 학생범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인성개발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겠으며, 청소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해환경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심신의 피로와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신수련장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 나가야겠다.

넷째, 교사들의 학생 비행 예방 지도를 위한 기술 습득과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비행학생 선도를 위한 代案學校 설립 운영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김연식, “청소년 범죄와 선도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2.
- 김정원, “청소년기의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 김정태, “농촌 중학생의 비행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준호, 노성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문하영,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
-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5.
-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7.
- 박성수,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재교육의 원리」, (청소년 범죄 연구, 법무부, 제10권, 1992).
- 박원기,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5.
- 박중식,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5.
- 박충길, “도시청소년의 비행 양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5.

- 법무부, 「청소년 범죄 연구 제 II집」, 서울: 문중인쇄, 1993.
- 손상윤, “한국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 심영희, 「청소년 범죄 누구의 책임인가」, 신동아 1984. 5월호.
- 원호택,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1).
- 유관선,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 유수진, “청소년 비행자의 가정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1.
- 유진식, 「소년법」, 서울: 육법사, 1982.
- 이구열, “중·고등학교 학생비행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0.
- 이춘재,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4.
- 장기웅, “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 정희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 청소년 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서울: 체육청소년부, 1991.
- 최정윤, “비행학생의 도덕성 발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9.
- 한국 청소년 연구원,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 현암사, 「법전」, 서울: 현암사, 1979.

A.K. Cohen, *Deviance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6.

Lemert, E.,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Polk, Kenneth, and Pink William., *School pressures toward Deviance*, In Kenneth Polk and Walter, E. Schafer, eds., *Schools and Delinquen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Weiner. B., Graham, S., Stern, P., and Lawson, M. E. Using affective cues to infer causal though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82.

<附錄>

중학생 비행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설문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비행 행동 원인과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998년 8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김 정 숙

1. 일반 기초 사항(해당되는 번호의 () 안에 √ 표)

1. 성 별 :	① 남 자 ()	② 여자 ()
2. 학교 설립별 :	① 국 · 공립 ()	② 사립 ()
3. 학교 형태별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	

8. 부모님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 ① 모든 것을 부모님 위주로 지도하신다
- ②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 ③ 내가 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

9. 현재 학생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만족한다 ②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③ 별다른 정이 안간다 ④ 달리 갈데가 없으니 있을 뿐이다

10. 학생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① 아주 정겹게 지낸다 ② 정겹게 지낸다
- ③ 서먹서먹하다 ④ 서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3. 중학교학생 비행의 행태

◎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보기>

- ① 가출 ②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③ 유흥업소 출입
- ④ 성 문란행위 ⑤ 폭력 ⑥ 절도 및 갈취 ⑦ 흡연 및 음주
- ⑧ 본드 및 약물복용 ⑨ 불량써클 ⑩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매체

1. 가출

1-1. 학생은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생각은 해 보았다 ③ 있다

1-2. (1-1에서 ③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 본인의 가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성적이 저조하여 ② 부모이혼 · 재혼 · 잦은 싸움 때문에
③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 ④ 호기심에서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가출 행동의 특성은 어떠한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③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④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⑤ 평범하다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 빈번한 무단 결석 및 조퇴

2-1. 학생은 무단 결석 및 조퇴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생각은 해 보았다 ③ 있다

2-2. (2-1에서 ③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 본인의 무단 결석 및 조퇴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공부하기 싫거나 수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② 친구나 선배의 유혹으로 ③ 다른 곳을 배회하고 싶어서
④ 부모나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3. 무단 결석 및 조퇴 행동의 특성은 어떠한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 ④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이며 거짓말을 한다
- ⑤ 평범하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 유흥업소 출입

3-1. 학생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생각은 해 보았다 ③ 있다

3-2. (3-1에서 ③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 본인의 유흥업소 출입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성적이 저조하여 ② 화목하지 못한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 ③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 ④ 호기심에서
- ⑤ 음성씨클의 강요로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3. 유흥업소 출입하는 행동의 특성은 어떠한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반항적이다
- ③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④ 만화나 비디오, 춤추기 등을 즐긴다
- ⑤ 유흥업소 출입하지 않는 학생들과 같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성 문란행위

4-1. 학생은 성 문란행위(성 관계, 입맞춤 등)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4-2. (4-1에서 ②번 응답자만 응답) 본인이 성 문란행위(성 관계, 입맞춤 등)를 경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른 기분을 내려고 ②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 ③ 음성씨클, 그룹 미팅에서 ④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3. (4-1에서 ②번 응답자만 응답) 성 문란행위(성 관계, 입맞춤 등)를 경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집(자신이나 상대방의 집 등) ② 여관이나 여인숙 등
- ③ 비디오 방 ④ 만화방
- ⑤ 공원이나 으스스한 장소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4. 성 문란행위(성 관계, 입맞춤 등)를 경험한 학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 ④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⑥ 평범하다

4-5. 학생이 성 충동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 ① TV나 비디오에서 야한 장면을 보았을 때
- ② 길거리에서 야한 간판이나 포스터를 보았을 때
- ③ 음란서적(잡지, 만화 등)을 보았을 때
- ④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이를 보았을 때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⑥ 없다

5. 폭력

5-1. 학생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5-2. (5-1에서 ②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은 폭행을 몇 번 정도 경험하였습니까?

- ① 2번 이하 ② 3-5번 정도
③ 6-10번 정도 ④ 11번 이상

5-3. (5-1에서 ②번 응답자만 응답) 폭행을 당한 경험이나 폭행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서
- ② 요구하는 금품을 거절해서
- ③ 자신이나 친한 친구의 행동을 선생님이나 윗사람에게 고자질해서
- ④ 좋은 환경과 공부를 잘 해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 ⑤ 기타 _____

5-4.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께 반항한다
- ③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④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6. 절도 및 갈취

6-1. 학생은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태앗긴 경험
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있다 ③ 자주 있다

6-2. 학생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빼앗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있다 ③ 자주 있다

6-3. (6-1, 6-2에서 ②, ③번 응답자만 응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빼앗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이어서 ② 용돈이 필요해서
- ③ 힘을 과시해 보려고 ④ 유흥비에 쓰려고
- ⑤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6-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④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7. 흡연 및 음주

7-1. 학생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있다
- ③ 자주 있다 ④ 예전엔 피웠지만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7-2. 학생은 술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있다
- ③ 자주 있다 ④ 예전엔 마셨지만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7-3. (7-1, 7-2에서 ②-④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호기심에서 ② 어른 기분을 내려고
- ③ 친구들이 피우니까 ④ 불량씨클의 강요로
- ⑤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⑥ 이유없이
- ⑦ 기타

7-4.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지각을 자주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 ④ 향이 강한 로션이나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 ⑤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⑥ 평범하다

8. 본드 및 약물복용

8-1. 학생은 본드와 같은 환각제나 습관성 의약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있다
③ 자주 있다
④ 예전에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8-2. (8-1에서 ②-④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이 본드나 습관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성적이 저조하여
- ② 부모의 이혼 · 재혼 · 잦은 싸움 때문에
- ③ 친구들이 피우니까 호기심에서
- ④ 친구와 마음껏 놀고 싶어서
- ⑤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8-3. 본드나 습관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지각을 자주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 ④ 멍한 표정이나 상태로 있을 때가 많다
- ⑤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⑥ 다른 학생들과 같다.

9. 불량 씨클

9-1. 학생은 불량씨클에 가입하였습니까?

- ①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② 한 때 가담하였으나 현재는 탈퇴하였다
- ③ 불량써클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다

9-2. (9-1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응답) 본인이 불량 씨클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친구의 권유로 ② 선배의 강압 때문에
③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④ 성적과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 심리로
⑤ 호기심 또는 순간적인 마음의 동요 때문에

9-3. 불량써클에 가입한 학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수업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④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이유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 ⑥ 평범하다

10. 음란 영상 매체

10-1. 학생은 음란성 및 폭력성 비디오나 만화·잡지 등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있다 ③ 자주 있다

10-2. (10-1에서 ②, ③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이 음란성 및 폭력성 비디오나 만화·잡지 등을 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②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 ③ 어른 기분을 내기 위해서 ④ 재미있을 것 같아서
- ⑤ 길거리나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10-3. 음란성 및 폭력성 비디오나 만화·잡지 등을 보는 학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음란·폭력 만화나 잡지를 본다
- ②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지각을 자주 하거나 양호실에 자주 간다
- ④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이유 없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 ⑥ 평범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 & Feature of Misconduct by Middle School Students

Jung Suk, Kim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set forth the following studying purposes in order to respectively give consideration in the home, school and social aspects for the cause and the feature of misconducts by middle school students.

- 1) How is status in problematic situation of the misconduct and what is the motivation?
- 2) Is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of student, by the school type and by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the feature of students with misconduct?
- 3) What is the practical idea to contract misconducts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this researcher concurrently conducted the bibliographical consideration and questionnaire research for cause &

feature of misconduct by middle school students. I distributed 350 copies in total of questionnaire sheets under the questionnaire research to get into the motive and feature of misconduct by pattern and actual commitment and the number of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was 312 copies. In the questionnaire research such items of students by sex,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chool, form of the school, boys school, girls school and co-ed school were respectively divided.

The frequency analysis used SPSS 7.0 of the statistical package and χ^2 verification in order to find out impact affects to experience and motive of misconducts by middle school students by individual variables were done under this research. And also, the correlationship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get into the correlationship with misconduct experience by middle school students with general matters.

As to lead conclusions for misconduct motive and feature of students as was clarified through this study may be rearranged by five kinds as follows :

- 1) The cause for runaway from home, frequent absence and early take off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indicated by because they hate the desolate home atmosphere or dislike to study or dread to -the school

teachings due to divorce, remarriage or frequent struggle by parents. Si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life leading with linkage by teachers & parents so that the affirmative self-concept may be formed by the students is necessary.

- 2) The cause for access to amusement center by middle schoolboys in many cases they answered as wanted to fully play with friends and the cause for disordered behavior with different sex many of them answered for curiosity to the different sex and, this may be regarded as lack of self-control by schoolboys or by feature begun by momentary impulse. Since therefore, to prevent this, not intercept unconditionally to the students but to provide facility to enjoy their leisure without burden in the free condition is required at the same time to make them understood by giving explanation of the reason to them that it shall not.
- 3) The cause for violence, pilferage and pickpocketing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indicated by need for pocket-money and they are disobedient and behaved impertinently and also, in fact it was indicated as a kind of maltreatment conduct to take away and satisfy just merely afflict the counterpart, not envious for the article owned by the counterpart. In order to prevent this to clarify that the violence, pilferage or embezzlement is in what category and to establish leading measure suitable to it.
- 4) The cause for smoking, drinking, use of bond and narcotic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mainly indicated by mere curiosity and to dissolve

spiritual pain. Therefore, not to unconditionally prohibit from it by students but the teacher is required to collect information on living environment of his(her) students, to analyze it in the objective position, to be endeavored t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area and to strengthen individual & group counselling with students as there is worry about adverse effect such as formation of repulsion and sense of crime.

- 5) The cause to contact to lascivious and violent image media was indicated due to curiosity to the different sex and vague interest and it may be deemed to be the cause of decadent image media suddenly overflowed recently or the social climate seeks for amenities however, if this is left alone the change in behavior will be made toward bad direction by imitation psychology.

In order to prevent this from the students the steady social education by school is required so that the students may not expose by their behavior by imitation of wrongdoing adults or immoral men of entertainment.